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 창세기 12--50: 하나님의 가정

### <인도자 지침서>

지은이 : 빌 틸만(Bill Tillman)

브래드 윌리암슨(Brad Williamson)

단 켄트(Dan Kent)

줄리오 가네리(Julio Guarneri)

자넷 버튼(Janet Burton)

Baptist Way Press®

달라스, 텍사스

인도자 지침서, 갈라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애베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반응

판권소유 © : 2002 BAPTISTWAY PRESS ®

모든 권리 소유.

교회사역을 위해 필요한 만큼 교회에서 복제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출판물의 복제판은 간략한 인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면을 통한 허용 없이 매매되거나 유통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BAPTISTWAY, Baptist General Convention of Texas, 333 North Washington, Dallas, TX 75246-179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BAPTISTWAY PRESS ®는 미 특허, 상표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개혁한글 성경  
, 1967 에서 했습니다.

초판 : 2002년 6월

#### BAPTISTWAY 운영위원회

주총회(BGCT) 행정책임자 : 찰스 웨이드(Charles Wade)

교회 건강과 성장 고문 : H. 린 에크버거(H. Lynn Eckeberger)

성경공부 / 제자훈련부장 : 테니스 패럿(Dennis Parrott)

커리큘럼 개발사역부 과장: 베나드 스포너(Bernard M. Spooner)

출판고문 : 로스 웨스트(Ross West), 다국적 언어 사역부

#### 한국어 집필위원회

단원 1-3, 학습공과 번역

최승오 - 새누리 침례교회, 달拉斯

단원 1-3, 학습공과 편집

조낙현 - 새누리침례교회, 달拉斯

한국어 집필 고문위원

로이스 로즈(Royce Rose), 신학교육 코디네이터, 텍사스 주총회

## 성인용 연속 성경공부

### 창세기 12--50: 하나님의 가정 - 인도자 지침서

**빌 틸만(Bill Tillman)**은 1과에서 5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공과의 "성경주해" 저자이다. 틸만 박사는 텍사스 하딘시몬스 대학교 락스돈 신학부에서 기독교 윤리를 가르치는 교수이다.

**브래드 윌리암슨(Brad Williamson)**은 1과에서 5과, 그리고 크리스마스 공과의 "수업계획"을 썼다. 윌리암슨 박사는 텍사스 파사데나 남부중앙침례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있다.

**단 켄트(Dan Kent)**는 6과에서 8과까지의 "성경주해" 저자이다. 켄트 박사는 싸우쓰웨스턴침례신학교 교수, 그리고 텍사스 왜코의 트루엣신학교의 조교수로서 구약학을 가르치다가 은퇴했다.

**줄리오 가너리(Julio Guarneri)**는 6과에서 8과까지의 "수업계획"을 썼다. 그는 텍사스 포트워쓰 이글레시아 보티사 갯세마네 교회의 목사이다.

**자넷 버튼(Janet Burton)**은 9과에서 13과까지의 "수업계획"을 썼다. 그녀는 텍사스 오스틴에 살며 기독교교육자, 저자, 칸퍼런스 리더로 잘 알려져 있다.

BAPTISTWAY PRESS®

Dallas, Texas

## ♣ 인도자 지침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 이 책은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성경주해" 부분인데 이 부분은 또 다시 "배경이해"와 "본문해석"으로 되어 있다. 원래 영어본은 "의미파악(Focusing On the Meaning) 부분이 있는데 단지 각 과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책 분량을 줄이고자 이곳에는 옮기지 않았다.

두 번째 부분은 "수업계획"이다. 이 역시 영어본에는 두 종류의 수업계획이 있는데 주총회 한국고문의 허락을 얻어 반복된 내용은 생략하고 한국교회의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들은 수정하여 하나로 묶어 놓았다.

수업을 처음 시작할 때 반원들이 학습공과의 목차 페이지나 혹은 각 과의 첫 부분에 수업할 날짜들을 미리 기록하도록 하라. 여기에 제시된 7가지 단계들을 참고하도록 하라.

1. 주중에 일찍 준비하라,
2. 학습공과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훑어 보라, 목차와 개요를 읽고, 공부할 각 단원의 주제, 학습목표, 탐구질문들을 읽도록 하라. 각과가 어떻게 그 단원과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며 각과를 끝까지 공부하도록 하라.
3. 각과에 해당되는 성경구절을 깊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라.(각 단원은 저자가 좋아하는 성경 번역본을 사용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번역본을 사용하여 비교해보는 것도 좋다)
4. 성경구절을 모두 읽고 난 후, 학습공과에 나오는 저자의 성경주해들을 읽도록 하라. 그 해석은 여러분의 성경공부를 돋는데 목적이 있다.
5. 학습공과에 나오는 각과의 보충설명들을 읽도록 하라. 그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주며 많은 교훈을 줄 것이고, 묵상하며 적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6. 각과의 질문들을 스스로 답해보도록 노력하라. 좀더 깊은 생각과 적용을 하게 하며 성경공부 자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들을 본문을 연구하는데 참조하도록 하라.
7. 이 책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수업계획안"들을 훑어보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당신 반의 학습목표를 이루는데 도움이 될 것인지 생각해보라. 제시된 수업계획안들을 응용하거나 창조적으로 만들어 보라.

## 창세기 12--50: 가정 이야기

### 단원 1. 이스라엘의 첫 번째 가정

제 1 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심 (창세기 11:27-12:9)	5
제 2 과	가정 속의 갈등 해소 (창세기 13:1-18)	10
제 3 과	가정의 근심 (창세기 16:1-16)	15
성탄절 말씀	하나님께 영광! (누가복음 2:1-20)	20
제 4 과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 (창세기 17:15-17; 18:11-15; 21:1-7)	25
제 5 과	당신의 믿음, 당신의 꿈 (창세기 22:1-19)	31

### 단원 2. 그 다음 세대들

제 6 과	로맨스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4:34-51, 57-67)	36
제 7 과	하나님, 그리고 라이벌관계의 두 형제 (창세기 2:19-34; 27:22-29)	40
제 8 과	하나님,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 (창세기 28:10-22; 32:24-31; 35:9-15)	45
제 9 과	꿈을 가진 자가 겪을 수 있는 일들 (창 37:3-12, 18-28)	49
제 10과	유혹이 다가올 때 (창세기 39:1-21)	53

### 단원 3. 꿈과 성취

제 11 과	어떻게 성공하는가 (창세기 41:15-16, 25-45, 53-57)	57
제 12 과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창세기 42:6-8, 44:14-34, 45:1-5)	61
제 13 과	이야기의 의미 (창세기 45:4-15, 50:15-21)	63

## 제 1 과

###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심

#### 핵심본문

창세기 11:27-12:9

#### 배경

창세기 11:27-12:9

#### 주제

아브라함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가정들에게 축복을 넓히시기를 시도하신다.

#### 탐구 질문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 교육 목표

참석자들로 아브라함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규명하고 그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는가에 대하여 증거 하도록 도와준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그러나 바로 나온 말이(창 6:5),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였다. 이러한 죄악 가운데 노아 한 명만이 "...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였다 (6:9).

노아와 그의 가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몇 사람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노아는 하나님과 서약을 맺고 그분의 심판인 홍수에 견딜 큰배를 지었다. 대홍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에 대한 심판으로 임했다.

창세기는 예상대로 일반 가정에서 전체 집단으로 커져갔다. 바벨탑에 대해서는 해석이 별로 없지만 (11:1-10), 인간은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을 겪어야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성취와 영적 통찰력을 발견하기를 시도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데라라는 이름과 함께 죽보가 끝난다.

데라의 자녀 중 한 명인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분의 의지로 인간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셨다. 스스로 거부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 인간에게 좋은 관계의 손길을 내미셨다.

#### 본문해석

##### 데라의 자손들(11:27-32)

11:27. 창세기 11장 후반부에서 삶의 전환기가 펼쳐진다. 하나님의 각본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독자들에게 전개되고 있다. 아브람과 그의 형제들 나홀과 하란과 더불어, 다른 중요 인물로 롯이 등장한다.

11:28. 이 새로운 본문이 상세하게 전개된다. 그 가정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졌음을 보여주듯 우르라는 곳에 살고 있었다. 데라가 살았던 당시, 그 지역은 약 2000 BC년 전에 세워졌던 도시로 불렸다. 우르는 아마도 남쪽 메소포타미아에 위치한 달 신을 섬기는 중심 지역이었을 것이다.

11:29-30. 데라의 남은 두 아들들은 결혼했다. 사래에 관하여보다는 나홀의 아내인 밀가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사래에 관하여 독자들이 단정지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사래는 임태하지 못하므로..."라는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문장 때문이다. 이 자료가 아브람에게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전개하는 사건에 관하여 암시하고 있다.

11:31. 이 구절에는 수수께끼 흔적이 있다. 왜 데라가 그의 가족과 함께 우르를 떠났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다. 어떤 사람은 데라가 하나님과 알고 지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우리는 단지 데라의 가족이 북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으로 옮긴 결과로 상상해 볼 수 있다. 이 하란은 우르에서 약 884.95 km(550 마일)에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특별히 한가지 주의 할 것이 있다. 그 가족은 우르를 완전히 떠났다. 우르에서 그 가족의 초창기 배경은 아브람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딱 한번 더 언급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가족과 함께 새로이 사역하시는 때이다 (15:4).

### 아브람을 부르심

12:1.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데라와 그의 가족의 이주에 관계했다는 것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러한 여기서부터는 성경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가라고 말씀하셨다. 이 소명은 지금까지 창세기에 있는 엄청난 사건들을 뒤바꿔놓는 것과 같다. 인간이 특별히 에덴의 영과 장소로부터 멀어졌다면 (3:10-14:23),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에덴의 실패를 대신하기 위해 왔다.

12:2-3. "복을 주신다"는 것은 생명, 능력, 영감, 그리고 생계유지를 준다는 뜻이다. 이러한 중요한 개념은 이 두 구절에서 5번이나 나온다.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그 뜻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큰 민족"이 된다는 약속이 먼저 온다. 새로운 사람들, 새 문화, 그리고 하나님과 연관되는 새로운 방법이 아브람과 함께 시작했다. 실제로, 복을 아브람이 먼저 받았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축복을 간직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다. 아브람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삶의 좋은 일들을 즐거워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근원이 되기도 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때 더 많은 복을 누린다는 역설을 이해하게 되었다.

아브람의 축복이 그의 전 인생에 나타나지만, 그 축복은 또한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진다.

12:4. 아마도 아브람은 심사숙고하여 준비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성경은 아브람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의를 제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대로 단순하게 나아갔다. 하란에서, 아브람은 남서 방향인

가나안으로 옮겼다. 이 여행은 장장 640km (약 400마일)정도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아브람의 의존은 성경이 언급한 것처럼 아브람이 다음 여정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였다는 것을 통하여 더 빛나게 하고 있다.

12:5. 이 한 구절에 모든 것이 끝났다! 처음에 아브람과 그의 일행은 착수했다. 이 구절의 마지막에는 그들이 가나안에 있다. 여행 중에 겪었어야 할 그 어떤 어려움도 언급되지 않았다.

창세기 12:4는 아브람이 룻이 자신과 함께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은 룻의 성격이 나중에 표현되면서 더 확실해 지기 시작했다.

12:6-7. 가나안에서 아브람의 첫 번째 휴식처는 세겜이었다. 세겜은 비탈진 그리심산 밑에 사마리아 언덕에 있는 아주 중요한 가나안 도시였다. 그 위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종교와 정치적 역할을 담당한 곳이었다 (참조 사사기 9:1-57; 열왕기상 12:1,25). 의심할 여지없이 모레는 이미 가나안 신전이 되었다.

7절은 아브람이 하란을 떠나기도 전에 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을 담고 있다. 아브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고 모든 여행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가장 최근의 지시로 아브람은 제단을 쌓았다. 아마 어떤 해석은 그가 자기 영역을 세웠다는 것이고 좀더 실재적인 해석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예배를 위한 장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수 백년 후에 바울이 아텐에서 사용했던 방법과 같이, 아브람도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바로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세웠다.

12:8-9. 아브람은 계속해서 남쪽 방향으로 이동했다. 먼저 그는 또 다른 제단을 쌓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벤엘과 아이 사이에서 쉬었다. 다른 곳에서 아브람이 제단을 쌓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배울 것이다. 어떻게 그 제단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아브람의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 보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아브람의 여행은 그를 남부 팔레스틴인 네게브로 인도했다. 또다시, 성경은 "아브람이 점점 더..."라고만 했지 그 외 아무런 말도 없었다. 얼마나 걸리는지, 도시가 있는지, 제단을 쌓았는지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누가 가장 많이 이사한 경험이 있는지 손을 들어 다음 질문들을 설문 조사해 보라. 질문, 다섯 번 이상 이사한 사람은 있는가? 열 번 이상? 다음 질문들을 사용하라:

- 이사할 때 좋았던 점은 무엇인가?
-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 (이사할 때 상황을 나누라)
- 이사할 때 상황을 어떤 말로 묘사할 수 있는가? (고됨, 힘든 일, 친구와 헤어짐, 새로운 친구를 만남, 등등)

(선택: 사역자를 초청하여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서 다른 곳으로 사역지를 바꿀 때의 심정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알았는가를 나누게 하라.)

2. 다음 질문으로 계속하라: 가정이 이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답할 시간을 주라 (전근, 가족 상황 변화, 건강의 이유, 등등).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면,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옮기라거나 우리가 옮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고 하신다는 것을 주의 시켜라. 우리가 오늘 배운 히브리사람들의 아버지 아브람의 삶을 지적하라. 하나님의 어떻게 아브람을 부르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학습인도

3. 학습 공과에 나온 참고를 사용하여, 창세기 1-11장에 대한 간단히 요약하라. 자원자로 하여금 11:27-32절을 다른 사람들이 아브람의 가족의 유산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읽도록 한다. 아브람의 가족의 유산에 대해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질문하라. 필요하면 아브람의 가족의 유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라.

4. 학급을 2-5명 정도로 세 개의 그룹을 만들고, 다음 과제를 주어라. 약 10분 정도 시간을 주어라.  
(학생이 6명 이하이면, 학생 전체에게 그 과제를 사용하라. 학생이 15명 이상이면, 몇 그룹을 더 만들어라.)

#### 그룹 1: 창세기 12:1-9를 읽는다.

- (1)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약속들을 나열한다.
- (2) 하나님은 아브람을 격려하기 위해 약속을 주셨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격려하고 계신가?
- (3)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가? 당신의 대답을 설명하라.
- (4)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약속을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5)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을 사용하고 계신가?

#### 그룹 2: 창세기 12:1-9를 읽는다.

- (1)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하라 하신 일들을 나열하라.
- (2) 1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를 아브람이 어떻게 느꼈는지 당신의 생각을 논하라.
- (3)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하라 하신 일을 당신에게도 요구하신다면 당신의 어떤 느낌을 받는가?
- (4) 만약 하나님의 아브람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당신 생각에 아브람의 반응에 변화가 있었을까? 왜 그런가 아니면 왜 안 그런가?
- (5) 하나님의 우리에게 뭔가를 시키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 (6) 우리 그룹에게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으시지 않으셨나?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대답은 어떠한가?
- (7)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을 사용하고 계신가?

#### 그룹 3: 창세기 12:1-9절을 읽으라.

- (1) 아브람이 하나님께 응답한 방법을 나열하라.
- (2) 하나님의 약속하지 않으셨어도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생각하는가? 왜 그런가 또는 왜 안 그런가?
- (3)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아브람과 그의 가족의

느꼈던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4) 아브람이 여호와의 단을 쌓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5)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아는가?
- (6)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 부르셨던 적이 있는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응답하였는가?
- (7) 하나님이 역사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 (8)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해 어떻게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을 사용하고 계신가?

#### 적용격려

5. 흩어진 그룹들을 모이게 한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보고캐 한다. 필요하면 학습 공과를 통해 더 첨부한다.

6. 이번 주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것을 체험할 것을 권유하면서 맺는다. 하나님이 역사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로 초청 받아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지적하라.

## 제 2 과

### 가정 속의 갈등 해소

#### 핵심본문

창세기 13:1-18

#### 배경

창세기 13:1-18

#### 주제

아브람과 룻은 그들 가족들간의 갈등을 해소할 양쪽 모두에게 만족할 방법을 찾았고 약속대로 시행했다.

#### 탐구 질문

당신의 가정에 어떤 갈등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을 찾으므로 해소될 수 있는가?

#### 교육 목표

참석자들로 아브람과 룻을 통해 가정 갈등을 해소해야 요소들이 오늘날 현대 가정 안의 갈등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표현하도록 인도한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가나안에 흉년이 시작되었다. 창세기 12-50장을 좀 더 공부해 보면 이런 흉년은 가끔 찾아왔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땅에서 아브람을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아브람은 그 흉년을 애굽으로 도망하는 도구로 이용했다.

애굽에 도착할 무렵, 아브람은 바로에게 사래가 자기의 누이라고 말했다. 이 표현은 법적으로 사실이다; 그녀는 아브람의 배다른 누이였다. 그럴지라도, 문제는 아브람이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의 누이를 바로의 첨이 되기를 바랬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진실 같은 거짓말로 살길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주의할 것은 이러한 아브람의 표현이 나중에 그의 손자인 야곱에게도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애굽인들은 사래의 매력을 느꼈으며, 바로도 그녀를 첨으로 맞았다.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격노하셨다. 바로는 더 이상 이 일이 커지지 않도록 했다. 그는 아브람에게 사래를 보냄으로 응답했다. 창세기 12:20절은 아브람이 바로의 군대의 호위를 받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해석은 아브람이 바로의 성읍과 애굽을 나가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보냈다고 한다!

잠시 동안, 아브람은 빼아픈 교훈을 배웠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교훈은 훌륭한 사람들도 가끔 어리석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격의 회복도 가능하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얼마나 언약을 위태롭게 했는지 이해했을지도 모른다. 그 자신이 가장 심한 적이 되었다. 그가 자신의 실수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다.

## 본문해석

### 약속의 땅으로 돌아감(13:1-4)

13:1. 아브람, 사레, 그리고 롯은 애굽에서 나와 네개브로 올라갔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 (참조 12:5; 16:1). 그들은 분명 흥년이 있었던 곳으로 가기 시작했다. 13:1-8절을 통하여, 우리는 아브람은 믿음의 교훈을 배웠다고 볼 수 있다. 애굽에서 나와 다시 돌아가는 환경이 아브람에게 위기를 맞게 한다. 새롭게 되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오는데 어떤 때는 그 환경을 우리 스스로 만든다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13:2 바로 몇 구절 후에 아브람의 환경이 흥년에서 축제로 바뀐다. 이 본문의 부분적 의미는 아브람의 획득은 아브람의 삶이 하나님과 맞추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3:3-4.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관계 개신은 아브람이 애굽, 네개브 위와 벤엘을 떠나 옮기면서 더 자세하게 보여주었다. 벤엘은 아브람이 애굽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었다 (12:8).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았던 이곳으로 다시 훌러들어 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 약속의 땅에서의 갈등(13:5-7)

13:1. 이 부분의 사건에서는 아브람의 인격의 깊이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독자들은 이미 아브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대하여 알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는 롯의 재산을 얘기하고 있다. 모든 것을 복수로 표기하고 있다-양들, 가축들, 그리고 장막들. 그 수가 아브람 것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롯도 잘했다.

13:6. 엄청난 가축들과 사람들은 아브람과 롯에게 문제를 안겨다준다. 가축을 방목하기 위해서는 많은 풀과 물이 필요하다. 아브람과 롯이 살았던 건조한 지역에는 풀과 물이 귀한 곳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동물들을 위해서는 광대한 땅이 필요했다. 식량과 물로 인한 경쟁은 쉽게 방랑자들의 전쟁으로 도화될 수 있다.

13:7. 내부 싸움이 어려움을 만들어냈다. 좀 더 큰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그곳에 있었다. 아브람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말다툼하기 시작했다면, 의심할 여지없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들이 서로 치고 받는 사이를 이용하여 동물들을 훔쳐갔을지도 모른다.

### 문제 해결(13:8-13)

13:8. 아브람은 그 긴장을 완화시킬 방법을 제안했다. 아브람이 연장자였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인생 경험과 하나님에 의한 사리분별로 인해 좀 더 현명했었다. 한편으로는, 아브람이 그가 연장자이고 가축도 더 많이 가졌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은 더 내세울 수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중시 여긴다고 했다면, 롯은 아마도 목자들을 잘 다루었을 것이다.

첫째, 아브람은 롯이나 롯의 종들을 마귀로 대하지 않았다. 또한 아브람은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다. 다만, 아브람은 하늘에 간청했다. 싸움을 그치게 할 방법을 구했다. 야비한 힘 대결이나 부득이한 폭력을 통해서는 아무 것도 얻는 게 없다.

둘째, 아브람은 "우리가 한 골육이라"라는 말을 분명히 포함시켰다. 한 골육이라는 것이 가정 갈등의 환경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각 당사자들은 마치 서로 모르는 사이처럼 행동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수상한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 여기서 삼촌이 조카에게 꾀가 섞인 사이라고 상기시켰다. 더 나아가서 특별히 아브람의 의견 뒤에는 이 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뭔가 특별한 가족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13:8. 아브람의 세 번째 계획은 두 부류가 서로 헤어지기로 하는 것이었다. 각각의 그룹은 서로 자기 번호에 더 초점을 맞추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골육간의 다른 점이 말 그대로 거리를 만들게 되었다.

네 번째 단계는 윗사람의 자리를 버리는 것이었다. 아브람은 롯에게 가고싶은 대로 가도록 선택권을 주었다. 아브람이 먼저 가질 수 있었지만, 진짜 선택권을 롯에게로 돌아갔다.

13:10. 롯은 아브람과 같이 도량이 넓지 못했다. 성경은 인생 가운데 한 사람의 양심과 방향적 감각이 하나님에 의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롯은 동쪽을 바라보며 요단계곡의 풍요로운 기름진 땅을 보았다. 가축을 소유한 사람으로서는 그 장소가 보물이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께 어디로 가야할지를 구하지 않았다. 롯은 아브람에게 양보하지도 않았다. 사양하는 예의도 없었다. 그보다 롯은 가장 부유한 소유지를 보자마자 그 즉시 가졌다.

13:11. 두 부류의 가축과 사람들이 서로 헤어졌다. 롯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땅으로 옮겼다. 14:1-16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주위에 있는 왕들에게 인질로 잡힌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을 보면, 조카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 아브람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버린 가족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13:12-13. 본문은 두 번씩이나 소돔의 문제를 거론했다. 또다시 위험 신호가 대두됐다. 롯은 그 신호를 놓쳤다. 그는 이러한 환경에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 그의 행동 가치가 소돔과 같은 곳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놓지도 못했다.

###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13:14-18)

13:14-15. 롯과 대조하여,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 시점에서 아브람의 모든 행동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신이 있을 수 있는가? 의심할 여지없이 롯이 그의 인생으로 어디로 이끌던,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의 넓은 도량으로 덮었다. 아브람은 아직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밑에 있다.

12:1절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그 땅은 그의 자손들에게 줄 땅이라고 했지만, 그 약속은 아브람이 본 모든 땅 역시 그의 것이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걸어다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즐길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영원히"라는 말은 장시간의 약속, 장기간 동안 기억한다라는 것을 가리킨다.

13:16. 더 나아가서, 아브람이 살았던 곳은 마치 땅의 티끌 같이 엄청나게 많은 아브람의 자손들의 집이 될 것이었다.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라는 말은 재미있는 그림을 연상케 한다. 이 약속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했을 것이다. 비록 아브람에게 가축들이 많았더라도, 진정한 부자는 자손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한다.

13:17. 믿음의 삶에 대한 시각이 이제 아브람에게는 약속의 땅을 걸어다니는 삶이 되었다. 아브람 앞에 추상적으로 다가온 그 약속은 명백하고 구체적이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그 땅을 사방으로 걸어보고 그의 발바닥으로 직접 느껴보라고 하셨다. 아마도 아브람은 이따금 서서 자신의 손으로 땅의

흙을 날려보았을 것이다.

13:18.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아브람은 달랐다. 이 땅으로 인해 흙을 만지고, 경치를 보고, 가축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감사보다는 탐욕의 원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아브람은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그는 그에게 온 모든 것들이 자신의 힘과 지혜 이상의 것으로 구체화된 것을 충분히 보았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응답은 자신의 삶을 위해 힘과 지혜가 어디에 두어야 할지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질문: 현대 가정에 갈등을 유발하는 가장 유력한 근본 원인이 무엇들인가? 당신의 답을 칠판에 써라.

(학생들의 대답이 학습공과에 나온 "갈등 해결"이란 글에서 나눈 얘기와 흡사할 것이다. 수업 마지막 시간에 필요하니까 지우지 마라.)

2. 다음 자료를 나누라: 모든 가정은 정도는 틀려도 갈등을 겪는다. 많은 가정들이 그들 안에 있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마도 당신은 지금 당신 가정에 갈등을 겪고 있을 것이다. 창세기 13장에서 배우는 성경공부는 아브람의 가족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갈등을 겪었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아브람과 룻은 서로 다른 점을 양쪽 다 만족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그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서로 만족할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할지를 배울 수 있다.

#### 학습인도

3. 수업 전에, 큰 종이에다 학습공과에 나오는 요약을 적는다.

- I. 갈등의 원인들 (13:-14)
- II. 갈등의 정도(13:5-7)
- III. 갈등을 위한 해결책(13:8-13)
- IV. 갈등후의 하나님의 보호하심(13:14-18)

본문을 간략하게 알기 위해 요약을 참조하게 하라.

4. 첫 번째 요점인 "갈등의 원인들(13:1-4)"를 참조하라. 자원자에게 13:1-4절을 크게 읽게 하라.

학습공과의 자료를 사용하여, 아래 나오는 것들을 설명하라:

-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의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감 (12:10-20)
- 아브람은 애굽에 있을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한" 부자가 됨 (13:2)
- 아브람과 그의 가족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돌아감
- 아브람 다시 벤엘에서 경배함 (13:4)
- 아브람은 좋은 시절을 경험함

질문: 당신 생각에 갈등이 행복할 때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은가 아니면 역경이 올 때 더 많이 나타날 것 같은가? 당신의 삶은 어떠했는가? (서로 나눌 시간을 주라).

5. 두 번째 요점인, "갈등의 정도 (13:5-7)"을 참조하라. 자원자에게 13:5-7절을 읽게 하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고대 반 유목민들"에 대한 보충설명과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아브람과 롯이 그들의 목자들과 함께 충돌했던 어려움을 간단히 설명하라.

6. 세 번째 요점인, "갈등을 위한 해결책 (13:8-12)"를 참조하라. 자원자에게 13:8-12절을 다른 참석자들이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되었는지 들을 수 있도록 읽게 한다. 질문: 이 구절에서 롯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브람은 무엇을 하였는가? (가능한 답들: 그는 가정이 편안하기를 원했다, 롯에게 선택권을 준다. 그에게는 좋은 사고방식을 가졌고 롯이 택하지 않은 곳을 가질 의향이 있었다.) 학습공과를 사용하여, 아브람이 어떤 갈등 해소 원리를 사용했는지 설명하라. (나누면서 칠판에 적는다.) 아브람은:

- 문제를 인식했다
- 문제들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작은 문제로 인정했다.
- 긍정적인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 자기 자신보다 롯의 필요를 채웠다
- 모두가 만족하는 길을 찾았다.

아브람이 단순히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하라.

7. 마지막 요점인, "갈등 후의 하나님의 보살핌 (13:14-18)"을 참조하라. 자원자에게 13:14-18절을 읽게 하라. 하나님이 아브람을 축복하고 다시 약속하셨음을 지적하라. 마태복음 5:9에서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하셨던 것을 말하고 창세기 13:14-18절에 그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다고 하라.

### 적용격려

8. 수업 첫 시간에 1 단계에서 발견한 유력한 갈등의 원인들을 나열한 것을 가리킨다. 학습자들로 한 개의 갈등 원인과 다섯 가지 원리 중 모두 만족하는 결과인 6 단계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인도하라.

9. 학습자들에게 그들에게 당면한 어떤 갈등, 특히 그들 가정에 있는 갈등을 해결할 때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도전을 주라. 기도하고 맷는다.

## 제 3 과 가정의 근심

### 핵심본문

창세기 16:1-16

### 배경

창세기 16:1-16

### 주제

하나님은 혼란한 가족 중간에도 도우시기 위해 나타나신다.

### 탐구 질문

하나님은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계시는가?

### 교육 목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문제를 어떻게 사역하셨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참석자들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창세기 16장의 사건들은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아브람의 응답에 대한 또 다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언약의 약속에 관한 아브람의 정신 상태를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아브람과 사래의 아이는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았다. 아브람은 여지없이 걱정이 앞섰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약속들이 성취될 것인가?

15:1절에 아브람에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걱정하는 아브람과 하나님의 시각에 대한 실마리를 주고 있다.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아브람은 자신의 종이 엘리에셀을 자신의 상속자라고 말하면서 문제 해결을 구했다. 그런 후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재차 약속을 하셨다. 엘리에셀이 아니라 아브람에게서 나오는 아들과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오리라고 하셨다 (15:4-5). 아브람은 "...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므로" 걱정이 없어졌다 (15:6).

계속해서 아브람은 우리처럼 자신의 인간성을 보였다.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라고 결론지으셨던 그분의 본체를 아브람에게 나타내셨다. 하나님의 출현은 아브람이 적당하게 알만큼 하나님의 때에 보이셨다.

## 본문해석

### 사래가 계획을 세우다(16:1-4)

16:1. 아브람과 사래가 가나안에 첫 발을 디딘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16:3), 아직까지 그들에게는 상속자가 없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이 가졌던 성급함이 이제는 사래에게 옮겨갔다.

사래는 아브람의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런 상황이 불행하게 여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들과 같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자로 인정받는 것이 종종 아이를 갖느냐 못 갖느냐로 결정된다.

아브람과 사래가 우리에게 자식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도대체 언제 어떻게 갖느냐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이 대화를 했고 눈물을 흘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급기야 사래는 그녀가 세우는 계획으로 그 질문에 답하고자 마음먹었다.

16:2. 사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사래의 여종, 하갈과 함께 아이를 가질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제한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다가갔다. 하갈은 분명 수년 전에 애굽을 떠난 여종 중의 하나였다. 어쩌면 그녀가 사래보다 더 젊었을지도 모른다.

아브람은 즉시 그 계획에 동의한다. 어떤 사람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상속자를 주시는 거라고 착각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아브람과 사래는 충분히 주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계획이나 실행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무런 대답도 못한다.

16:3. 하갈은 이제 더 이상 구차한 역할을 할 필요가 없었다. 대신에, 하갈은 신분이 변하여 아브람의 아내가 되었다. 아브람과 사래가 하갈에게 그 계획을 제안한 것만큼 어떤 대화를 나눴을지 상상해보라. 하물며, 아브람과 사래가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고 의논했을지 상상해보라.

16:4. 하갈의 여성미는 사래보다 우월했고, 이제는 하갈이 임신을 했고 사래는 못했다는 사실이 하갈이 사래를 학대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사래에 대한 하갈의 학대는 뒤얽힌 가족 관계 가운데 뭔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 계획의 실패(16:5-6)

16:5. 하갈의 학대는 사래를 감정을 건드려 더 궁지에 몰아넣었다. 아브람은 사래의 성냄이 칼끝과 같이 매서웠고 자신이 이 일을 공명 정대하게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사래는 자신이 도와서 일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을 아브람의 탓으로 돌렸다. 그녀는 또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호소했다. 아마도 사래가 하고자 했던 것 중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했을 것이다.

16:6. 어떤 독자들은 편파적인 결론으로 뛰어넘어 당연히 사래는 빠져야지. 그녀는 여자 아닌가? 뭘 바랄니까?라고 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극단적으로 단순하고, 부당하고, 잘못된 것이다. 아브람도 역시 잘하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하라. 어떤 사람은 그가 "뭐가 더 중요해" 라며 어깨를 으쓱대는 사람으로 보고, 그 애는 네 여종이다. 내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할 수 있다. 현실은 아브람과 사래 모두 그 문제를 만들었다는 것이었다.

아마도 하갈과 아브람 모두에게 복수하기 위해, 사래는 여종인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여 도망하게 하였다.

하갈의 도망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계기를 맞게된다.

###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살펴주시다(16:7-12)

16:7. 16장의 나머지 부분은 하갈에게 맞춰졌다. 그 짚은 여인은 정신적, 육체적인 사래의 수중에서 벗어났다.

하갈은 분명히 그녀가 외형상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다. 그녀는 도중에 하갈의 고향인 애굽으로 향하는 길에 위치했던 술길 샘 옆에 도착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거기서 만났고 그녀에게 물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킨다.

16:8-9. 16:8-11에 네 번씩이나, 성경은 사자가 하갈에게 "말씀하셨다"를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 "말씀하셨다"에는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다: (1)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2)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 두 개의 질문은 당시 하갈에게 중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중요하다. 우리 각 개인은 인생 재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인생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결심과 행동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갈지를 보기 위해 우리의 비전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해준다.

하갈의 대답에는 두 가지 요점을 담고 있다. 첫째, 그녀는, "도망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둘째, 그녀는 사래를 학대받을 경쟁자로 말하지 않고, 자신의 여주인으로 말했다.

사자가 말한 두 번째 "말씀하셨다"는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지시했다. 하갈이 처한 상황은 참으로 힘든 상황이었다. 여호와의 사자는 돌아가고 나서 사래와의 관계가 원만해지고 일이 잘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하여튼, 하갈이 다시 돌아간 것도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였다.

16:10. 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자는 세 번째 "말씀하셨다"에서 두려움을 야기하는 선언을 했다. 하갈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약속을 받았다. 아브람이 수많은 백성의 아버지가 될 때, 하갈은 그들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와 같은 약속을 받은 여인은 구약 성경에서 하갈 혼자이다.

16:11-12. 네 번째 "말씀하셨다"와 함께 여호와의 사자는 그 아들이 수많은 자손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갈의 아들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마엘이라고 불렸다. 의심할 여지없이, 이 이름은 하나님이 사래를 피해 도망하는 하갈을 보호하셨고 들으셨다는 사실에 주의를 모으고 있다. 이 하나님의 행동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특징적이다. 이 행동은 하나님의 인격이시다. 하나님은 진퇴양난에 놓여 살도록 강요받는 역압받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들어주신다.

하갈은 또한 자기의 아들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하여도 배웠다. 만약에 우리가 그 표현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할지도 모른다. 이스마엘은 방랑자, 개인적, 사막의 족장의 모델이 되었다. 그는 길들이지 않은 말처럼 아무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마엘은 창세기 21:8-21에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다시 언급되었다. 이스마엘의 자손은 25:12-18절에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다.

## **하나님이 보시고 돌보아 주시다(16:13-16)**

16:13. 하갈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을 믿고 경배했다. 아브람의 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하갈은 분명히 아브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 하심을 보았고 자신의 믿음도 드렸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을 때, 하갈은 기꺼이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응답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 것처럼, 그녀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그분과 대화를 묘사했다.

하갈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녀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는지 깨달았다. 하나님은 하갈을 보셨고, 하갈도 하나님을 보았다.

16:14. 하갈이 당면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갈을 만나셨고 그녀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경험을 기념하기 위해, 하갈은 그 샘을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인 "브엘라해로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16:15-16. 하갈은 사래와 아브람에게 돌아갔다. 사래와 아브람의 아들이 태어나기까지 14년이란 세월이 더 흘렀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만약 당신이 젊은 부부를 담당하고 있다면, 다음 질문을 하라: 당신이 결혼하기 전에 받았던 충고 중에 최고의 충고는 무엇이었는가? 만약 당신이 중년 반이 노년 반을 담당했다면, 다음을 질문하라: 만약에 당신이 젊은 예비 부부에게 결혼 전에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다면, 무슨 조언을 하겠는가? 만약 당신이 젊은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다면, 한 부부를 당신의 반에 초청해서 위의 두 질문들을 사용하여 그들과 면담을 나누라.

2. 결혼은 참고서라는 제목의 책이 없지만, 있다면 아마도 아주 성공적인 결혼생활과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라! 사람들은 결혼할 때 밝은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함께 아주 훌륭하고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만들 계획을 세운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인생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데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늘 배우는 성경 공부에서 창세기 16장에 있는 아브람과 사래와 그들의 계획과 꿈을 보게 될 것이다.

#### **학습인도**

3. 학급을 세 그룹으로 나누라. 각 그룹에게 사래, 아브람, 그리고 하갈의 역할을 하도록 하라. 그 그룹들에게 다음에 나오는 질문들을 듣도록 하라.

- (1) 당신이 맡은 역할인들이 문제에 대해 한 일은 무엇인가?
- (2) 당신이 맡은 역할이 긴장을 없애거나 완화시키기 위해 다르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 (3) 당신이 맡은 역할이 긍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4. 성경을 일기 전에, 학습공파에 있는 첫 번째 요점인 "갈등의 원인들(13:1-4)"를 참조하라.

자원자에게 13:1-4절을 크게 읽게 하라. 학습공과의 나오는 "가정들의 꿈 (16:1-4앞)"에서 배경 자료를 나누라.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래를 부르신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아직까지 아이가 없었다. 사래에게는 아이가 그녀의 꿈이었다. 16:1-2절을 크게 읽어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주해를 사용하여 아브람에게 하갈을 줄 무렵에, 어떻게 사래의 행동이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행동인지 설명하라. 16:3-4앞을 크게 읽어라. 하갈이 아브람과 부부의 인연을 맺고 난 후에 하갈의 신분이 바뀌었음을 지적하라. 이제 하갈은 예전의 여종에서 아브람의 아내가 되었다. 계속해서 16:4뒤-16절을 읽어라. 학습자들에게 특별히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물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라.

5. 학습자들에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물의 역할대로 반을 나누라고 하라. 각 그룹은 각 인물이 한 사람씩 있어야 하며 위의 질문을 나누게 하라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주라.)

6. 학습자들을 다시 모으고 다음 순서에 맞춰서 그들이 무엇을 찾아냈는지 나누도록 하라: 사래, 아브람, 하갈. 필요하면, 학습공과와 이 교사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 주제"를 참고해 그룹을 도우라. 또, 각 그룹이 보고할 때 다음의 자료들을 사용하여 토의를 인도하라.

● 사래: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서 갔고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질문: 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16:5절에 보면, 사래는 자신의 삶에 어렵게 된 이유로 아브람에게 그 책임을 비난하고 있다. 당신의 사래의 결론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동의하지 않는가? 왜 그런가?

● 아브람: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보다 앞서 간 사람이다. 아브람은 자신의 상속자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다메섹 엘리에셀, 15:2). 당시 사회적 통념이 많은 아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허락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한 결혼이 아니다. 아브람은 그의 사랑하는 아내인 사래 옆에 있었고, 그녀가 하갈을 침으로 주려하는 것을 허락했다.

● 하갈: 그녀는 사래에 자신의 자세가 교만하고 거만하도록 내버려두었다. 그녀는 사래를 중요했고 앙심을 품었다. 아브람이 사래에게 하갈에 대하여 알아서 하라고 허락한 후에, 하갈은 아마도 완전히 배신당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심이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등한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창세기 16:4-16절은 하나님이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적용격려

7. 종종 우리 모두는 학대받는 느낌을 받거나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돌보시는 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품을 때가 있었을 것이다.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방법으로, 다음 질문에 대해 상고해보고 대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에게 보이기 위해 그리고 당신이 그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서로 나눌 시간을 주라.

# 하나님께 영광!

## 핵심본문

누가복음 2:1-20

## 배경

누가복음 2:1-20

## 주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린다.

## 탐구 질문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우리에게 이런 기쁨을 가져다주는가?

## 교육 목표

학습자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뜻을 설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누가복음 2장은 누가복음 1장의 배경 설명이라고 보고 있다. 이 두 장에는 누가복음 전체에 나타난 아주 두드러진 주제-큰 기쁨을 담고 있다.

더욱이, 침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의 흥미로운 대구법을 누가복음 1-2장에서 볼 수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대구들은 부모의 소개(1:5-7과 1:26-27); 마리아의 임신을 예고함(1:8-23과 1:28-38); 어머니의 반응들(1:24-25와 1:39-56); 그리고 탄생(1:57-28과 2:1-20)들이다. 다음 대구 절들은 할례와 작명(1:59-66과 2:21-24); 예언적 반응들(1:67-79와 2:25-39); 그리고 아이의 성장(1:80과 2:40-52)들이다. 이런 요점들이 대구들이라 할지라도, 독자는 바로 누가복음이 예수님에게 두 장에 걸친 부분을 할애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누가 더 중요한 인물인지 의심하지 않는다.

누가복음은 아주 생생하게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신약 성경 주석가들은 누가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보다 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가장 풍부하고 자세하게 쓰고 있다고 한다. 누가는 문맥을 가장 솔직하게 꾸며서 현대인들도 중요한 부분을 알아낼 수 있고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 중요한 구절들은 연대표(1:5, 10, 23, 24, 26, 36, 39, 56, 59; 2:1, 6, 8, 11, 21, 22, 38, 41, 42, 43, 46)를 포함하고 있다. 지형학과 정치적 영역과 관계가 있는 구절들도 언급되어 있다: 유대(1:5, 39, 65; 2:4); 갈릴리(1:26; 2:4, 39); 로마제국(2:1); 그리고 수리아(2:2). 다른 문학과 구상의 중요점은 지형학이다: 산에 있는 유대 동네(1:39, 65); 다윗의 성읍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감"(2:4, NIV, NASV, Greek), 또는 예루살렘(2:22, 42, NRSV, NIV, NASV, Greek); 그리고 나사렛으로 "내려감"(2:51, NRSV, NIV, NASV, Greek).

그 외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최초의 법령과 사명으로 읽고 볼 수 있다. 이 중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과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한쪽은 목자들, 겸손한 제사장 가족들, 그리고 아이를 기대하고 있는 경건한 유대 젊은 부부들이다. 다른 한쪽은 당시 정치적 통치자들이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대는 유대인 살았던 당시 정치적 우월에 대한 배경에 반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신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배우면서, 일어난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큰 목적에 대해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생각해 보라. 그렇게 하면서, 그 사건이 아마도 좀 더 분명해지고 당신이 그것을 다시 이야기하도록 당신의 잠재의식에 감동을 줄 것이다.

## 본문해석

### 예수님의 탄생(2:1-7)

2:1. "이 때에...."라는 말은 침례 요한의 초기 삶에서 예수님의 삶으로의 전환을 말하고 있다. 법령 또는 황제 칙령은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에게서 나왔다. 이 법령은 남자들의 호적 신고를 명했다. 가이사 아구스도는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로 태어나 로마 제국을 27BC에서 AD 14년까지 통치하였다. 그의 통치는 로마의 지배에 의한 평화로 시작되었다.

2:2. 아주 훌륭한 행정가로 알려진 아구스도는 제국 영토에 총독들을 임명하였다. 누가는 구레뇨를 로마제국의 영토 중 하나인 수리아 총독으로 보고 있다. 유대의 상황에 대하여 역사는 확실하지 않다. 헤롯 가족이 팔레스틴을 78 BC 초 때부터 통치하였고, 유대는 아마도 빌라도가 총독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영토가 아니었을 것이다.

구레뇨에 대한 자료는 현대 독자들에게 연대 설정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그 자료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약 AD 6년부터 수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마태복음 2:1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통치했다고 보는 헤롯 대왕은 4 BC에 죽었다. 혹시 누가가 이름 또는 시간을 혼동한 것을 아닌가? 한 가지 상고해 볼 것은 우리는 이 인구조사가 언제 행해졌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누가의 최우선의 관심은 크로노스(현재 사용하는 시간)가 아니라 카이로스(하나님이 구속사역을 위해 인간사에 들어오실 때)다.

2:2-4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지만(참조 2:39), 그의 선진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요셉은 메시아가 오실 "다윗의 집 족속"의 사람이다.

2:5. 보통 여자들은 인구조사에 해당되지 않았다. 아마도 마리아는 산달이 다가왔기에 요셉과 함께 있고 싶었을 것이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나올 것이라는 미가 5:2절에 대하여 뭔가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또 다른 중요한 자료인 마태복음은 누가복음과 같이 마리아와 요셉이 서로 정혼한 사이라고 말하고 있다(참조 마태복음 1:18; 누가복음 1:27). 마태복음은 그 결혼이 아직 완전한 결혼이 아니라는 다른 표현으로 그들은 같이 살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누가복음을 쓴 목적은 마리아가 "아이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다. 2:1-5절은 하나님의 목적이 세상 가운데서 시작되고 있었다. 누가의 설명이 어떻게 일반적인 것에서--광대한 정치적 세계--개개인에게--해산을 앞둔 부부에 옮겼는지를 주목하라.

2:6. 이 구절과 함께, 누가는 1장에서 시작된 성경의 한 부분을 종결해야 했다. 가브리엘이 말한 그

사건(1:31)이 일어났다.

2:6. 이 시점까지 누가복음의 문맥상, "맡아들"이란 말은 독자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 본 장의 남은 사건들은 이 진리를 확인할 것이다.

아이를 강보에 쌌다. 이것은 아기의 팔다리를 곧게 하기 위해서였다.

누가가 새 아기에 대한 돌봄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도 그 아이가 태어난 장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에 주목하라. "사관"이란 용어는 아마도 지나가는 객이 하룻밤 묵는 곳이었을 것이다. 누가가 이 사관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엄마와 특별히 아이가 지낼만한 곳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본문은 계속해서 호화와 특권을 겸손과 대조시킨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에 유념하라

### 목자들에게 선포함(2:8-14)

2:8. 목자들은 유대 사회의 부랑자들을 대표했다. 유대법에 따르면 그들은 부정직하고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목자들은 또한 당시 경제적 위치와 사회 서열이 낮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었다. 어떤 목자들은 조그만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을 수 있지만, 가족의 필요가 목자를 하도록 요구했다.

2:9. 천사에 대한 목자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천사는 확신과 큰혜택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 또한 아무런 파문을 일으키지 않고 어떻게 복음이 유대인들에 기쁨을 주었다. 그 기쁨은 천사가 가져올 복음에서 소생된다. 기쁨은 소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게 게서 이방들에게로 옮겼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2:11. 앞으로 도래할 복음, 기쁨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이 복음과 함께 한 기쁨은 "오늘"일어났다.

아기에게 준 명칭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탄생의 가장 큰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와 "주님"은 당연히 이 아기의 신성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구세주"는 사람들이 구원을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구세주"와 "주님"이란 용어는 보통 헬라 문화에서 사용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그 두 단어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2:12.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아기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라고 말해주었지만, 그 아기의 이름과 아기의 부모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어쩌면 그날 밤 베들레헴에서 다른 아기를 찾을 기회 조금 있었다. 그렇지만, 천사는 그 모든 명칭을 갖게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분명한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실수는 있을 수 없었다.

2:13-14. 밤의 어둠과 천사의 임재와 함께 온 환한 빛 사이에 누가가 이미 빼버린 불분명한 대조가 이 구절에서 강화됐다. "...허다한 천군이..."이란 문장은 셀 수 없을 만큼의 방대한 천사의 숫자를 가리킨다.

누가는 이 사건에 대한 두 가지 면을 대화하려고 의도했다. 첫째, 이렇게 전개된 사건은 하나님의 고귀한 축근자가 돌보였던 그런 영향이었다. 두 번째, 허다한 천사들은 "이 경탄할 사건을 인해 "하나님께 찬양"했었다.

### 탄생의 복음에 대한 반응(2:15-20)

2:15. 천사들이 다 떠나 하늘로 올라간 후에, 목자들은 잠시 의논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양보다 더 중요한 사건은 없었다. 목자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말씀대로 따라야겠다고 결정했다.

2:16-18. 신속한 결정과 함께,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보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천사가 가져온 현실적인 첫 말씀을 경험하기 위해 양떼들을 떠났다. 요셉은 웬지 무대 뒤로 사라졌다는 것을 주목하라. 당시 문화에서는 처음 받은 이름이 사회적 의미중의 하나이다.

누가는 이 아기에 대해 기쁨을 누리기 위해 이 사람들이 들에 얼마나 머물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없었다. 그들이 방문하자마자 그 장면은 목자들이 그 저녁에 본 사건에 대하여 만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이 보고들은 것을 말했다.

우리가 기대하듯이, 목자들의 이야기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놀랄만했다. 당연히 어떤 청취자들은 믿음과 경이로 반응했다. 우리 시대에도, 어쩌면 다른 청취자들은 불신과 경이적 감각으로 반응할 것이다.

2:19-20. 이제 누가의 이야기는 이 사건들에 대한 마리아와 그녀의 반응으로 화제가 바뀌었다. 아마도 그녀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의미에 대해 확실치 않았던 것 같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사람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아기의 탄생과 목자들과의 만남에 관한 사건을 곰곰이 생각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좀 더 완전히 이해했을 때까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담아두기로 결정했다.

목자들의 마지막 장면은 흥분, 즐거움, 기쁨 그 자체였다. 그들의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에게는 새로운 자세, 시각, 그리고 새 생명을 가지고 돌아갔다. 그들은 복음을 보았고, 알았고, 정말로 들었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학습 전에, 학습공과에 나오는 큰 종이나 칠판에 요약된 내용을 써라.

- I.     로마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2:1-3)
- II.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2:4-7)
- III.   천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2:8-14)
- IV.    목자들의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2:15-20)

### 삶과의 연결

1.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축하하는 방법을 말하라. (선택: 아기 예수 탄생 장면을 만든 세트를 가져 오라. 그 세트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 말고, 마리아와 요셉에 대한 것만 하라.) 질문: 당신이 크리스마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갖도록 도와주는 크리스챤 전통을 가지고 있는가?

## 학습인도

2. "로마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2:1-3)" 요약을 가리킨다. 다음의 자료에 대해서 나누라: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방법들을 모색하라. 자원자를 시켜 2:1-3절을 크게 읽도록 하라. 학습공과에 나오는 주제를 사용하여, 배경 설명을 나누라. 비록 가이사 아우스토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라.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방 군주가 만든 인구조사 법령을 사용하셨다. 이 인구조사는 요셉과 마리아를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의 탄생지로 선포했던 베들레헴으로 오게 했다 (마가 5:2). 다음 질문들을 사용하여 토의를 인도하라:

-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가져오기 위해 그분이 사건들을 잘 정리한 방법들을 본 것은 무엇인가?
- 하나님의 역사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영광을 받고 계신가?

3.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2:4-7)"란 요약 내용을 가리킨다. 자원자에게 2:4-7절을 크게 읽게 한다. 학습공과에 나오는 주제를 사용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왜 그리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되었는지를 서로 나누라. 질문: 당신은 왜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여행을 함께 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할 시간을 주라. (가능한 답은 학습공과에 나와있다.)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위한 일상적이지 않은 환경을 나누라. 질문: 당신은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조그만 아기의 인간 형체로 변하시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려고 했다고 생각하는가? 대답할 시간을 주라. (선택: 대답한 후에, 예수님이 탄생 장면 세트에 아기 예수를 놓아라.) 설명: 아이러니 한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극적인 일을 하셨을 때, 세상은 그분의 아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비극은 아직도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계획 속에, 또한 가정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방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4. "천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2:8-14)"란 요약 내용을 가리킨다. 자원자에게 2:8-14절을 크게 읽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이 "탄생선포"를 했는지 (또는 받았는지) 손을 들어보라고 하라.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탄생 선포의 선창자이셨다는 것을 시사하라. 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선포의 중요성에 관해서 학습공과에 나오는 자료를 계속해서 나눈다. (선택: 천사를 아기 예수 탄생 장면 세트에 놓아라.)

5. 학생들에게 자신들이 언제 처음으로 들은 복음을 관하여 개인 간증을 나누도록 하라. (선택: 이 시간에는 새 교인이 된 사람의 개인 간증을 나누도록 하라.)

6. "목자들의 선포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2:15-20)"란 요약 내용을 가리킨다. 2:15-20절을 크게 읽는다. (선택: 목자를 아기 예수 탄생 장면 세트에 놓는다.). 다음 사항을 나누라: 목자들은 아기 예수의 탄생에 대한 첫 번째 인간 중인들이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그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질문: 올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어떤 방법을 나눌 수 있을까? 대답할 시간을 주고, 칠판에 대답한 것들을 적어라.

## 적용격려

7. 올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격려하라. 기도로 마무리하라. (선택: 학생들에게 올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이름을 말하라고 하라. 이 사람들도 기도에 넣어 함께 위해서 기도하라.)

## 제 4 과

### 생명의 신비와 경이로움

#### 핵심본문

창세기 17:15-17; 18:11-15; 21:1-7

#### 배경

창세기 17:15-17; 18:11-15; 21:1-7

#### 주제

어떤 어려움과 실패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 탐구 질문

주님이 하시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는가?

#### 교육 목표

가끔은 기대하지 않았던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축복을 발견하고 감사하도록 참석자들을 인도한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탐구질문을 다시 읽는다. 어찌면 그 질문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나 많이 받는 질문일 것이다. 어떤 공부에서는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 주께 능치 못할 일은 없다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종종 이 말은 경솔하게 들릴 수도 있다. 어떤 때는 자주, 도움이 되려고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 역사 하실 겁니다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하면서 평범한 상황으로 이끈다. 우리는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해야할 소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한다.

그렇지만, 종종 이 말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을 삶의 깊은 수준으로 이끈다. 그렇게 될 때, 이 말은 어찌면 말하는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말하는 사람은 삶의 어려운 고초를 경험했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어려움을 헤쳐 나간 사람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주님께 모든 관심을 돌리고 있다는 확신을 감지하게 된다.

이 과의 본문은 우리를 삶의 깊은 곳을 인도하고 있다. 이 과에 창세기 본문에서 빠진 상황들은 경박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고 너무 심각해서이다.

우리를 위해 나온 주제는 친근감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아기를 약속하셨지만, 아브람과 사례는 불신앙으로 반응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

이러한 주제들은 아브람과 사래의 시간에는 그리 특별하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영역 안에 우리를 이롭게 하기 위해 약속을 세우신다. 불신앙, 무지, 또는 겸손 또는 이해 부족 등- 어떤 이유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따라서, 이 공부에 앞서, 당신이 경험했거나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라. 또한 하나님의 행동 속에 포함된 역동적인 모습과 아브람과 사래의 반응들과 대답들, 그리고 행동들을 주목하라.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당신도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활동에 마음에 열어야 한다.

## 본문해석

### 아들에 대한 약속(17:15-17)

17:15. 17:5절에,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좀 더 친근하게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다. 이름의 변화는 "열국의 아비"로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상황을 맞이한다는 표적이다 (17:5). 지금, 하나님은 사래를 사라라고 이름을 바꾸셨다. 사래와 사라 두 이름은 뜻은 모두 왕비이다.

17:16. 사라의 이름이 바뀐 것은 아마도 아브람의 이름이 바뀐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여인은 왕비로 부름 받았고, 이제, 그녀는 왕비가 되었다. 16절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신 언약을 처음 선포하셨던 곳이다.

언약, 아브라함의 후세에 하신 약속, 새 왕국의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작과 함께 아브람의 완전한 동참을 보았다. 이제 사라가 이 일로 불려졌다. 새 상속자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라만을 위한 축복을 약속하셨다. 그녀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것은 물론, 하나님께 그녀에게 직접 축복하실 것이다.

17:17. 여기와 17: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몸짓을 주목하라. 아브라함은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의 모습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웃었다" 그는 백 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라는 질문을 "속으로 말했다". 아니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아브라함의 수사학적 반응이었을 것이다. 외관상으로, 아브라함은 속으로 한 생각을 하나님은 모르게 자신만 갖고 있기를 원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모르게 그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웃음에 직접적으로 반응하시지 않으셨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로 미루어 보아, 아브라함은 17:18절에 자기의 상속자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신에, 하나님은 17:19절에 그들이 아들을 낳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것도 말씀하셨다. 이삭의 뜻은 웃는 사람이란 뜻이다.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농담을 했다." 하나님도 농담하셨다.

### 약속에 대한 의심(18:11-15)

18:11. 본 장의 처음 열 구절은 아브라함과 사래의 집에 이상한 방문과 연관짓고 있다. 장소는 새 땅 안에서 그들이 소유한 가장 좋아하는 위치인 마르레이이다. 세분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본문은 이 세 인물은 하나님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중 한 분은 하나님이셨다. 아브라함이 사용한, "내 주여"

(18:3)는, 두 가지 해석을 가진다. 하나는 방문객에 대한 환대를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사건 진행상, 그 표현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방문객들의 의도는 창세기 17장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사라가 아들을 가진 다근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이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다. 이제, 사라는 이 말씀을 장막 뒤에서 들었다 (18:10).

그들의 고령의 나이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은 다시 한번 말하고 있다. 생물학적 현상이 이들이 아들을 갖는 것을 막았다. 99살 되는 사람(아브라함)과 90살 되는 사람(사라)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18:12. 사라는 이때 그들의 장막 안에서 "웃었다." 그녀는 실제로 인간적인 말을 했다. 그 질문은 그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것만은 아니었다. 반면에, 그녀는 또한 부부 사이의 사랑을 즐길 수 없는 그런 때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18:13. 그보다 더 큰 증거는 주님이 세 방문객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구체화했다는 것이다. 사라의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사라에게는 말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에게는 하셨다. 하나님은 사라가 왜 웃었는지 알고 계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문은 다소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이었다.

18:14. 하나님은 다음 선언을 하셨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개념이 본 과의 중심부라 할 수 있다. 그 질문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을 반영한다.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게 느껴지는 약속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보여주려고 하셨다. 새 나라가 시작되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새 아기가 태어날 것이었다.

18:15. 사라는 자신이 하나님이 선포에 대하여 웃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자신이 웃었다는 것을 부인한 이유는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라가 웃으며 부인한 것에 대한 반응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였다. 이 구절에서 "그가"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아브라함인가? 만약 아브라함을 가리킨 것이라면, 아브라함은 농담을 했을 것이다. 그 말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약올리는 것이었을 수 있다. 아니면 아브라함이 당신이 웃었어.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이 약속이 성취될 가능성을 생각했어야 했어 라는 뜻이었을 것이다.

### 성취된 약속(21:1-7)

21:1. 창세기 18장과 21장의 사건들 사이에 약 1년의 세월이 지났다. 큰 역사가 벌어졌다. 그 일 가운데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와 이 도시들의 멸망으로부터의 롯의 도망들이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마르태에서 현재 가자지역으로 옮겼다 (창 20).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에게 애굽에서 했던 것처럼 사라가 자기의 누이라고 주장했다 (12:10-20).

이런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한다. 그 사건은 21:1절에 나온 아들의 일로 돌아간다. 18:10절에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정녕 네게 돌아오리라"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여기에 그 사건은 특별히 사라에게 관계된 하나님의 역사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21:2. 태아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본문은 다시 아브라함이 "고령"이라고 상기시켜 주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는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하셨다.

이전에 성경은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보다 먼저 했던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라와 아브라함이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갔다. 이 두 가지 경우들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놓쳤다.

우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사건들이 온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까? 이 일에 대해 많이 고민했다. 아무 것도 맞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을 위해 기도고 많이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요청도 많이 했다. 그런 후 어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한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다.

21:3. 지금쯤은 아무도 새 아기의 이름이 이삭이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잉태되었던 아기의 얼굴을 보고, 네 이름은 이삭이란다. 네가 크면은 네게 어떻게 태어났는지 네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마. 우리가 네 이름을 부를 때, 당연히 네가 듣고 있겠지, 우리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거란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함께 미소짓고 웃을 거란다.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보라.

21:4. 창세기 17:9-14절은 처음으로 할례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세한 지시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할례를 행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을 위한 할례는 하나님과 히브리 사람들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기 위한 의도였었다. 나중에 성경은 할례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의 할례의 외적 상징인 것이었음을 연관짓고 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 이후에 독자는 히브리 사람들을 할례 받은 자들로 그리고 팔레스틴인, 앗수르인들, 그리고 바벨론인들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로 연관 짓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지도력에 거만하고 무반응인 사람들을 가리킨다.

초대교회 논쟁 중의 하나는 (사도행전 15) 이방인이 개종하기 위해 할례가 필요했는지에 대한 것이 주 관심사였다. 결론은 믿음과 회개를 통한 마음의 할례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1:5-7. 본문은 계속해서 놀랄만한 일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불신앙과 함께 웃었던 사라가 기쁨과 즐거움의 웃는 자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이 구절들은 아기가 없는 부부가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가질 것이라고 보증하는 본문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 구절들은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때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사라와 아브라함은 "웃음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말이 판에 박힌 말 이상의 것이라고 이해했다. 그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이삭에 대하여나 그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서로 낄낄대고 웃었을 것이다. 그들은 웃음이 울음보다 낫고 웃을 때가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통렬한 웃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도 알았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 신문을 수업에 가지고 오라. 당신이 읽을 것처럼 펴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오늘 신문의 주제를 "복음"이라고 가정합시다." 언젠가 우리는 복음만을 기사로 쓸 수 있다. 당신의 신문의 첫 머리 부분에 어떤 내용을 보고 싶은가? (선택: 신문을 보이는 벽에 붙이고, 마커로 그 위에 "주제"를 써라.)
- 신문과 방송국에 기사화 된 내용들은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하고 있다고 지적하라. 창세기 첫 부분에서 우리는 가정 삶의 문제의 "좋지 않은 소식"과 그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오늘 성경공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한 우리의 삶에, 임한 기대치 않았던 축복인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학습인도

- 시작 전에, 다음 성경 구절을 네 명에게 읽도록 하라: 해설가,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여호와.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라. (창. 15:1-5; 17:15-17; 18:9-14; 21:1-6, NIV)

해설가: 여호와의 말씀이 비전과 함께 아브람에게 왔다.

아브라함: 오 주관자이신 여호와여, 자식도 없고 내 재산을 상속 받을 자가 다메섹 엘리에셀인데 당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당신은 나에게 한 명의 아기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집의 종을 나의 상속자로 두고자 합니다.

여호와: 네 종이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고, 네 몸에서 날 아기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보라 그리고 네가 셀 수 있는 별들을 세어 보라. 네 자손들이 이와 같으리라. 네 아내인 사라에게, 너는 더 이상 사래로 불리지 않을 것이고 네 이름을 사라라 칭할 것이다. 내가 그를 축복하고 아들을 주리라. 내가 축복하여 그로 열 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모든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해설가: 아브라함은 땅에 엎드리어 웃는다.

아브라함: 백 세 되는 사람에게서 어찌 아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90살 된 사래에게서 아기가 나오겠습니까? 당신의 축복으로 이스마엘이라도 살면 다행입니다!

여호와: 그래, 그러나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고, 너는 그 아기를 이삭이라 할 것이다. 내가 그의 자손을 위한 영원한 나의 언약을 그와 함께 세우리라.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 저기 장막 안에 있습니다.

여호와: 내년 이맘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그 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해설가: 이제 사라가 장막에서 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지 오래다. 사라가 그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웃었다.

사라: (웃으면서) 내 나이에 무슨 아기가 생긴다고 그러시나?

여호와: 사라가 왜 웃으며 "이렇게 늙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갖는가?"라며 말했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내년 정한 날에 내가 네게 오리라 그리고 그때 사拉가 아기를 잉태하리라.

해설가: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다. 사라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 나이에 아브라함의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그 때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때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이었다.

사라: 하나님은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4. 지금 방금 읽은 성경 구절의 기반으로 토의를 인도하기 위해 다음 질문들을 사용하라:

- 아브라함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라고 말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가?
- 하나님의 15:4-5절에서 대답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되는가?
- 17:16절에 하나님의 직접적으로 사라에게 주신 축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아브라함이 수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17:16절에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웃을 수 있었을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 17:18절에 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상속자라고 제안했는가?
- 18:12절에 나온 사라의 웃음과 18:15절에 나온 그녀의 부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당신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18:14, NIV)? 당신의 대답이 아니라면, 인간의 입장에서 능치 못할 일일 거라고 생각된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 아직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들 이루어지지 않은 소망들에 관해서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은" 무엇인가?
- "이삭"이라는 이름이 이 이야기에 어떻게 어울리는가? (참조 학습공과 21:1-5).

5. 학습공과의 주제를 사용하여,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개념을 나누라:

- 창세기 18:14(NIV)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기록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게 얼마나 엄청난 약속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말이다 (마태복음 19:26).
-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후에,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와 함께 웃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연히 그녀는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들려주었다.

### 적용격려

6. 다음 개념들을 나누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신실하시다. 우리도 사라가 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기쁨을 나누도록 하자.

7. 학급을 약 6명씩 해서 작은 그룹을 만들라.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은 축복을 주셨을 때를 서로 간증하게 하라. 개중에는 하나님께서 유독 그들만을 위한 것을 주신 것일 수도 있고, 구원을 통해 삶의 새로운 시작을 주실 때일 수도 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축복을 통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지를 말하게 하라.

8. 각 그룹에서 한 명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경축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라.

## 제 5 과

### 당신의 믿음, 당신의 꿈

#### 핵심본문

창세기 22:1-19

#### 배경

창세기 22:1-19

#### 주제

하나님은 인간의 꿈과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꿈과 방법을 믿고 살라고 우리는 부르셨다.

#### 탐구 질문

당신이 포기하고 싶지 않은 꿈과 방법은 어떤 것인가?

#### 교육 목표

인간의 꿈과 방법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강조를 위해 참석자들이 결심하도록 인도한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창세기 22:1-19절에 나오는 본 과는 우리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예를 들면, 본문이 좀 복잡하기는 하나, 얼마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상호 교류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시간에 대한 시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안 모든 어떠한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해 도와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꾸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사실, 꿈과 상상은 하나님의 훌륭한 선물이 될 수 있다. 대신,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 분별되고 형성된 꿈들을 성취하기 위한 우리의 꿈과 방법들이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일치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 왕국의 시작에 대한 꿈을 주셨다. 한동안, 아브라함은 이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다. 후에, 그는 그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마음을 열어서 꿈을 이루기 위한 결정을 했다. 상속자들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했다. 아브라함은 먼저 그의 종인, 엘리에젤을 자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제안했다 (15:1-4). 그런 후 아브라함은 사라의 여종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자신의 상속자로 생각하고 그의 아버지가 되었다 (16:1-5; 17:18).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비록 그들이 늙었어도, 아기가 있을 거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불신앙으로 반응했다 (17:17; 18:9-15). 하나님은 상속자가 하나님만이 이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다 란 응답한 인간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결정하셨다. 본 장은 아브라함 자신의 꿈과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만이 그분을 믿기 위하여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본문해석

믿음을 행함--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22:1-2b)

22:1. 가장 잘 알려졌지만, 해석하기 어려운 이 구절과 함께 본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관련시켰다 이삭의 출생 (창 21)은 하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관계에 대한 정점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다. 창세기 22장은 드라마의 의미를 더욱 높이고 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즉시 대답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 사건은 본 장에 아브라함이 이 같이 반응할 세 가지 중에 하나이다 (참조 22:7, 11).

22:2a-b.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대답할 준비와 믿음이 돼있었다. 명령은 아주 쉽게 시작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모리아 산으로 가야했다. 모리아 산에 대한 어떤 해석은 예루살렘 외곽에 돌산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약 80km(약 50 마일)정도 걸리는 여행이 시작되었다.

### 심각한 문제 (22:2c-7)

22:2c. 하나님으로부터의 지시는 냉정했고, 좀 더 심각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지시했다. 이유도 없었다. 우리는 즉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했던 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가? 라고 묻고 싶을 것이다.

22:3-4. 흥미롭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다. 대신,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여행을 떠났다. 타고 갈 나귀를 준비하고, 자신을 도울 사환을 고르고,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모든 일이 준비하는 일에 포함되었다. 어떤 사람은 왜 나무를 잘라 그곳까지 실어 날랐을까 의구심을 품을 것이다. 이 제사를 지낼 장소에는 나무가 없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이삭을 불에 태워버릴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이 때때로 그 나무를 보는 심정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번제할 장소를 보여주기로 약속하셨다 (22:2). 여행 삼일 째, 그들이 그곳에 가까이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멀리서 도착지임을 인식했다. 4절은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인 두 가지 예 중에서 하나를 담고 있다 (참조 22:13).

22:5-6. 이 여행에서 그를 도왔던 두 사환에 대한 아브라함의 설명은 아브라함이 일어난 모든 일들이 예배와 관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아브라함이 예배—"우리가 경배한다"-에 그와 이삭 모두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주목하라. 아브라함은 이 상황을 전개할 방법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브라함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지시대로 계속해서 움직였다. 우리는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제사에 불을 지필 나무를 옮길 만한 나이였다.

두 사환은 나귀와 여행에 필요한 물품과 함께 모리아를 떠났다. 아브라함은 이삭은 손에 손잡고 "함께 걸어갔다." 아브라함은 할례의 인식을 진행시켰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22:7.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흥분과 함께 물었다. 아이들이 하듯이,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앞서 가서 아브라함이 말한 곳을 찾아다녔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애정이 담긴 용어를 사용하여, "아버지!"라고

불렀다. 본 장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응답했다 (참조 22:1).

이삭은 희생제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다른 것들과 함께 동물도 필요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믿음을 행함--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함께 (22:8-14)

22:8. 이삭의 질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본문의 중심 요점중의 하나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부터 분명히 그를 자극했다고 말했다.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가 그런 의미를 만들 때나 들을 때, 당신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심각하게 들는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성공을 빌며 소원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은 아주 심각하게 의미를 부여한다. 통쾌하게, 구절은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나아갔다."

22:9-10. 이 구절들에서 전개되는 장면은 이상하다고 생각될 수 있다. 아브라함은 다듬지 않은 단을 세웠다--아마도 그곳에 있는 돌들을 함께 가져왔다. 아브라함은 창세기에서 보인 것을 통해 우리 공부를 하기 전에 단을 쌓았다(12:7,8; 13:18). 따라서, 그런 작업은 그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 돌들 위에, 브엘세바에서 운반한 나무를 쌓아서 불을 짚이기 위해 정리해 놓았다.

다음은, 아브라함의 설명도 이삭의 반대로 없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묶고 불을 피울 나무 위에 옮겨놓았다. 그런 후, 외관상으로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아브라함은 내려놓았던 칼을 잡고, 그의 아들을 자를 준비를 하였다.

본문의 해석가들은 아브라함의 생각에 관하여 깊이 고민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오래 약속되고 기다렸던 아이를 희생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면" (22:8),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22:11-14. 하나님의 시간은 결점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 속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본 장에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대답했다 (22:1,7,11).

하나님은 이삭에게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어디든 가려했고, 무엇이든 하려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에 우선 순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포기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준비하셨다. 아브라함은 수양을 죽여 그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곳에 놓고 제물을 바쳤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호 교류가 오갔던 곳에 이름을 지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다른 사람들이 읽고 다음 세대에게 성경 구절이 쓰였던 그날까지, 그 장소는 그 이름으로 알려졌다. 그 이름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을 보였던 사람들을 위해 준비하신다는 것을 상기하게 한다.

### 믿음을 행함은 하나님의 지속된 축복을 가져온다 (22:15-19)

22:15-18.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가져왔다. 확장과 번영에 대한 그림은 상상력을 훈들리게 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분명한 협신과

순종에 대한 결과로 왔다.

22:19. 모리아에서 만난 후부터, 아브라함은 단순히 그룹을 모았고 자신의 집이었던 브엘세바로 돌아갔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은 전에 있었던 일들과 비교해서 좀더 평범한 사건들을 담고 있다. 물론, 중대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사래가 죽고, 이삭은 결혼했다 (창 23-24). 그런 사건들은 인간사의 평범한 과정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나,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경험 후에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은 상상도 못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 있게 돋보이게 하고 의지하는 예배 경험의 방법이 아닌가? 우리는 절대로 똑같이 할 수는 없다. 그런 인식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측정할 수 있는 한 방법이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시작 전에: 학습공파에서 나온 다음 개요를 질판에 써라:

- I.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22:1-2)
- II.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22:3-8)
- III.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22:9-14)
- IV. 아브라함의 믿음에 경의를 표하는 하나님 (22:15-19)

### 삶과의 연결

1. 당신의 삶 속에 아주 중요한 아이의 얘기 때 사진을 가져 오라. 돌려서 보게 하라. (자신들의 중요한 아이들의 사진을 서로 나누도록 학습자들에게 시간을 준다.) 그룹이 그 사진을 보면서, 아이의 관점에서의 삶에 관하여 학습공파에 나온 이야기를 읽도록 하라. 질문하라, 성장에 관한 내용으로 이 이야기가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답할 시간을 주라.)

2.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를 믿는 일을 배워야 하듯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했다는 오늘 성경 공부를 가리킨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는지를 보기 위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이야기가 연관되어 있다.

### 학습인도

3.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다 (22:1-2)"라는 첫 번째 개요를 가리킨다. 친숙한 성경 구절임을 말하라. 우리들 대부분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알고 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끝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그는 무엇을 대면할 지 알지 못했다. 이 에피소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게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삭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사용한 것뿐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학습공파를 참조하라.) 이 시험은 마귀의 유혹을 보이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믿는 것을 보이고자 했다.

4. 22:1-2절을 크게 읽는다. 다음 질문을 사용하여 토의를 인도하라:

- 당신 생각에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하도록 했겠는가? (대답할 시간을 주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집을 떠나라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던 같은 두려움을 유발시켰던 가능성은 포함시켜라. 참조 12:1).
- 당신에게는 어떤 감정을 유발하게 했는가? (대답할 시간을 주라.)

5.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22:3-8)"이란 두 번째 개요를 가리킨다. 현대에 사는 많은 아이들이 부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모든 것인 것처럼, 이삭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것이었다. 이삭은 그들의 보물이었고, 미래였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니라, 그분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든 것이었기를 원하셨다. 22:3-8절을 크게 읽는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반대로 없이 번제를 준비했다. 그는 번제할 양만 빼고, 준비해야 할 모든 것을 준비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진술을 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사환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22:5, 밑줄 친 단어는 강조하기 위함)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 (22:8)라고 말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했고, 다만,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란 것만 믿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그의 아버지를 완전히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믿었다.

6.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 (22:9-14)"이란 세 번째 개요를 가리킨다. 22:9-14절을 크게 읽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그의 아들을 죽이게 할 작정이 아니셨다는 것을 진술하라.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통과했고, 하나님은 중간에 개입하셨다. 시험을 만드신 같은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온전히 그분을 믿었고, 이삭에게가 아니라, 그분께 대한 아브라함의 충절을 보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복종하는 관계를 가졌다. 그 관계가 그의 아들을 위한 아브라함을 사랑으로 대체했다.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믿을 분이시다라는 것을 좀 더 온전히 알게 되었다. 우리가 배우는 이 교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귀하고 개인적인 희망과 꿈들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이다. 질문: 우리는 어른들이 어떤 일들, 사람들, 혹은 생각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위에 놓는다고 보는가? (대답할 시간을 주라.)

7. "아브라함의 믿음에 경의를 표하는 하나님 (22:15-19)"이란 개요를 가리킨다. 22:15-19절을 크게 읽는다. 이 구절들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재확인 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설명하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분을 자기 아들 보다 더 믿었고 가치를 두었다는 아셨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제물로 드릴 것을 요구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은 친히 하실 의향이 있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모든 죄의 궁극적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 보내셨다.

### 적용격려

8. 학습공과에 나오는, "무엇이 시험을 구성하는가?"라는 사례를 크게 읽는다. 다음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하도록 학생들에게 질문하라:

- 우리가 (또는 가까운 친지) 암을 대면한다.
- 우리가 직장을 잃는다.
- 우리가 교통사고의 죽음으로 가까운 친지를 잃는다.

9.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지 않으셨던 것을 주셨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주셨다. 질문: 오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무엇인가? (대답할 시간을 주라).

10.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하심과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도로 맺는다.

## 제 6 과

### 하나님과 로맨스

#### 핵심본문

창세기 24:34-51, 57-67

#### 배경

창세기 24

#### 주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일상적이고 독특한 일들(로맨스를 포함하여) 가운데서 리더쉽과 방향을 제시하신다.

#### 탐구 질문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 교육 목표

하나님께서 로맨스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을 간파하는 방법들을 묘사할 줄 안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이삭은 창세기 22장의 거의 제물이 될 뻔했던 드라마틱한 사건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했었다. 그의 어머니 사라는 죽었다(창 23:2). 그녀는 새로산 막벨라 밭 굴에 장사되었다(창 23:19). 후에 아브라함,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이곳에 같이 묻히게 된다(49:30-31). 세월이 흘러 이삭은 이제 결혼 적령기가 되었다. 본파의 본문은 이삭을 나을 때 사라의 나이(90), 그리고 그녀가 죽었던 나이(127), 그리고 이삭이 결혼할 때의 나이(40)를 고려해 볼 때, 사라가 죽은 이후 약 3년 뒤에 일어난 일이다(17:17; 23:1; 25:20).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본문일뿐만 아니라 고대 설화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이야기이다. 중세 유럽시대에는 처음 7개 구절이 결혼식 이후 안식일에 신부를 위한 글로 읽혀졌다.

#### 본문해석

그 집사장(종)은 마침내 한달에 걸친 길고도 힘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여행을 마쳤다(24:10). 그는 메소포다미아의 한 우물 옆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만나게 함으로써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

#### 종이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다(24:34-41)

24:34-36. 자신을 아브라함 집의 집사장<2절>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저 종이라고만 소개한 것은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일 뿐임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그 종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재산과 목축들,

짐승들, 은, 금, 노예들, 낙타들과 나귀들에 대해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에게 말했을 때 놀란 모습을 상상해보라(24:35).

24:37-38. 아브라함이 처음에 일렀던 대로 이삭의 아내는 가나안이 아닌 친족 중의 한 사람이어야 했다(24:40-41). 이렇게 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며느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알 수 있었던 것이다.

24:39-41. 그 종은 아브라함이 며느리가 될 조건에 대해서 말할 때 즉시로 반대했었다. 그 종은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야 하는지"(창 24:5-6) 의아했었다. 아브라함은 단연코 그렇게 해서는 안되며 만일 그녀가 같이 오려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은 없던 것으로 하고 그냥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었다(24:8).

하지만 아브라함은 주께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쳐나가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

#### 종이 리브가와의 만남을 설명하다(24:42-48)

그 종은 또한 우물가 옆에서 자신이 했던 기도들(낙타들과 수행한 종들에게 물을 길어서 마시도록 요구하게 한 일, 리브가가 어떻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응했던 일)에 대해서 그 가족에게 말했다.(24:12-14, 26-27).

그녀는 그의 기도와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다: 아름답고, 사려깊고, 관대했다(24:26-20). 그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신뢰의 표현으로 그 종은 리브가에게 보석을 선물로 주었다(24:47; 24:53절을 또한 보아라).

그리고 나서, 그종은 다시 기도했다. 그는 그를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도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했다.

#### 종이 여행 목적을 이야기 하다(24:49-51)

24:49. 그 종은 가족에게 다소 직접적으로 결혼신청을 함으로써 그의 이야기를 마쳤다(24:49).

24:50-51. 우리는 라반이 가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미루어 리브가의 아버지 브두엘이 죽은 것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24:49). 하지만 브두엘은 단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었거나, 아니면 정신이 맑지 못한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종과 라반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라고 의견을 일치했다. 그 일은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오늘날 인도 남부 지역에서는 24:50절의 "이 일이 신(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구절이 부모들이 결혼을 준비할 때 결혼식 초청장에 사용된다.

#### 리브가가 결심하다(24:57-58)

이 시점에서 이 이야기의 흥미로운 부분은 리브가의 가족이 결정을 그녀에게 맡겼다는 것이다(24:57). 가족들은 모두 O.K였다. 하지만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 물어보았다(24:58). 아마도 족장시대의 여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추측하는 것과는 달리 그렇게 수동적이지 않았던 것 같다. 사라나, 레아, 라헬도 역시 항상 능동적인 여인들이었다. 물론 그녀는 기꺼이 결혼신청을 수락했다.

#### 리브가와 종이 떠나다(24:59-61)

너는 천만 인의 어미가...얻게 할지어다(24:60) - 자손 번성과 장막의 터를 넓히기를 기원하는 이러한 축복은 고대 근동 여인들에게 주어지던 최대의 축복이긴 하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22:17)을 알리 없는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녀에게 그것과 한치 틀림 없는 동일한 축복을 기원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빌어 재확인한 자신의 약속이자 예언으로 이해해야 한다.

### 리브가가 이삭을 만난다(24:62-66)

리브가와 종이 네게브로 불리우는 남부 팔레스틴으로 돌아올 때, 리브가는 남편이 될 이삭을 면발치서 처음으로 보게되었다. 그는 그들이 도착하는 저녁에 칠판을 걷고 있었다. 그도 역시 그들을 멀리서 바라 볼 수 있었다(24:63).

###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다(24:67)

창세기 24:67절은 구약성경에서 가장 마음에 마음에 사무치는 구절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것은 근대적 용어로 로맨틱한 사랑을 접근한 드문 구절 중의 하나이다. 이삭은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장막으로 데리고 갔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는 어머니가 죽은 후 위로를 얻었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반원 중 한 사람이 그의 혹은 그녀의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신청, 그리고 마침내 결혼하게 된 과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정해 놓으라. 수업을 시작할 때, 그 사람을 반원들에게 소개하고 그의 로맨틱과 사랑, 그리고 결혼한 과정을 같이 들어보자고 말하라.
2. 오늘 성경공부는 이삭과 리브가의 로맨틱한 만남과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라.

#### 학습인도

3.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도록 약 5분에서 8분정도의 소강의를 하도록 하라.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정보를 활용하여 다음을 다룰 수 있도록 하라:

- \*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계약
- \* 구약시대에 결혼방식
- \* 그 결혼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종의 역할
- \* 우물가에서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만남

4. 칠판에 처음의 아웃라인 "응답된 기도"(24:1-33)을 써라. 반원 중 한 사람이 24:34-51, 57-58절을 읽도록 하라. 두 번째 아웃라인 "받아들여진 요청"(24:34-58)을 칠판에 써라. (칠판이 없는 교실이라면 두꺼운 종이에 미리 써온 뒤 들어서 보여주도록 하라)

5. 같은 식으로 세 번째, 네 번째 아웃라인을 칠판에 기록하도록 하라.

6. 다음 질문을 활용하여 토론을 이끌라.

- \* 리브가의 가족에 대한 엘리에셀의 제안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는가?
- \* 엘리에셀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 어떻게 분명한가?
- \* 누가 그 제안에 반응했었고 어떻게 했는가?
- \* 리브가를 위해 제시된 신랑이 치룬 대가는 무엇이었는가?

\* 이삭과 리보가 사이의 이 결혼에서 볼 때 사랑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7. 마지막 아웃라인 "보존되어진 부족혈통"을 칠판에 써라. 이 제목 밑에 있는 학습공과를 이용하여 내용을 요약하라.

### 적용격려

8. 묵상기도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라. 기도할 때는 반원들이 각각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간구하도록 하라.

## 제 7 과

### 하나님, 그리고 라이벌 관계의 두형제

#### 핵심본문

창세기 2:19-34; 27:22-29

#### 배경

창세기 25:19-34; 26:34--28:9; 32:1-17

#### 주제

하나님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방식으로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

#### 탐구 질문

어떤 식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자이다, 혹은 아니라고 느끼는가?

#### 교육 목표

야곱과 에서의 선택과 행동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추적한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아브라함은 이삭과 리브가 결혼한 이후 몇 년을 더 살았다. 그는 재혼했고 다른 자녀들을 몇 더 두었다(25:1-4). 하지만 이삭이 그의 상속자임은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25:5-6). 아브라함이 죽자 그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은 그를 막벨라 굴 안에 있는 사라의 무덤 옆에 장사 지냈다(25:7-10).

이삭을 하나님의 축복은 분명해졌고(25:11), 이스마엘 위에도 하나님은 많은 축복을 내리셨다(25:12-28). 장면은 이제 야곱과 에서의 라이벌 관계를 보여주는 드라마틱한 곳으로 옮겨진다.

#### 본문해석

##### 야곱과 에서의 출생(25:19-26)

25:19-21. 그녀의 시어머니 사라처럼, 그리고 그녀의 며느리 라헬처럼 리브가는 성서시대의 문화에 있어서 여성에게 가장 커다란 비극으로 나타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고통을 오랫동안 겪어야만 했다. 창세기 전반에 걸쳐서 볼 때 이삭은 그의 아버지나, 부인, 아이들에 비해 소극적인 인물이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어떤 좋은 발단을 일으킨다. 주님께서는 그를 들었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리브가는 드디어 잉태하게 되었다.

25:22. 하지만 리브가는 매우 독특한 임신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아이들이 복중에서 심하게 다투는 것을 느낄수 있었던 것이다.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과 대립은 다음에 이어지는 창세기 10개의 장을 뒤덮고 있다. 그들의 처음 대립의 장소는 바로 어머니의 뱃속이었던 것이다.

25:23. 주님께서는 그녀가 쌍둥이를 낳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하셨다. 게다가 그들은 후에 두 개의 적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더욱 놀랄 일은, 형이 아우를 섬길 것이라고 계시하셨다. 주님의 계시 이후 리브가는 그 설명으로 인해 안심할 수 있었고, 임신의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

25:24-26. 마침내 아이들이 태어났다.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의 쌍둥이 동생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 이삭과 리브가는 둘째를 '발뒤꿈치를 잡는다', '속이다', '불의로 남의 뒤를 친다'(27:36), '발뒤꿈치를 듣다'(시 41:9) 등의 뜻을 갖는 야곱으로 이름을 지었다.

이삭은 그때 60살이었고(25:26) 결혼한지 20년이 되는 해였다(25:20).

### 에서가 그의 장자권을 빼기다(25:27-34)

그 쌍둥이 소년들은 같은 어머니 벳속에서부터 그랬던 것처럼 밤과 낮처럼 그렇게 달랐다. 그들은 성격이나 외모, 그리고 그들의 취미 및 경향들조차 달랐다. 그들은 서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에 완전히 달랐다.

25:27-28. 에서는 남자다운 남자로 자랐다. 그는 활달했고, 운동을 좋아했고, 벌판을 돌아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익숙한 사냥꾼, 들사람"(25:27)이 되었다.

이삭은 야생 고기를 잡아서 자기를 위해 요리를 직접해주는 에서를 가장 좋아했다. 리브가는 야곱을 가장 사랑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이 에서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이다.

25:29-32.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매우 드라마틱하다. 그 드라마는 25:29절에서 시작된다.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서 야곱이 형 에서를 지배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질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25:33-34. 에서는 야곱이 제시한 흥정에 그의 장자권을 너무도 쉽게 팔아버린다. 야곱이 이런 장자권의 소유를 위한 흥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1) 그가 평소에 장막에 머물 때 장자권의 영적 축복을 부모로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던 반면, 에서는 장자권의 가치에 관해무지하므로 가능했고 (2) 과거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언행을 자주 하는 것을 눈여겨 보아 있었고 (3) 사전(事前)에 이 문제를 놓고 농담조의 대화가 빈번하여 에서의 경계심이 해이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 행위에 있어서 굽주림에 처한 형의 처지를 이용해 장자권을 흥정한 처사는 정당시될 수 없다. 이 사실은 향후 그의 고달픈 인생의 여정이 잘 반증해 준다.

###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다(27:22-29)

이제 우리는 가장 흥미있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의 한 가운데까지 왔다. 이 것은 야곱과 에서사이에 있었던 대결의 세 번째 라운드이다. 에서는 첫 라운드를 이겨서 에서가 먼저 태어났다. 야곱은 장자권을 삼으로써 확실하게 두 번째 라운드를 이겼다.

27장을 열면, 이삭이 나이가 들어 시력이 거의 없어진 것을 볼 수 있다(27:1). 사실 그는 그후로 몇 년을 더 살았다. 하지만 그는 그가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죽기 전에 적합한 준비를 해야했는데, 특별히 에서에게 가족의 대를 잇는 축복을 하려고 했다.

27:22-24. 이삭은 야곱이 그의 형 흉내를 내며 그에게 접근했을 때 곧바로 그를 의심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27:20-21) 이삭은 염소털을 만졌다. 그리고 그래 맞구나, 털이 많이 난 너를 괜히 에서라고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지. 사실, 이삭은 이렇게 말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27:22).

야곱은 거의 믿을 것 같았지만, 아직도 확신이 서질 않았다. 그는 마음이 영 꺼림칙했다. 그는  
27:24절에서 다시 한번 야곱에게 물었다: 너 정말 내 아들에서 맞니?

야곱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27:25-26. 이삭은 만들어온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그에게 입을 맞추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들을 가까이 불러서 냄새를 맡기 원했다. 그의 눈은 나빠졌지만 후각은 여전히 괜찮았던 것이다. 한번  
깊게 냄새를 맡아본 후 이삭은 그래, 너는 네 아들에서가 맞구나.

27:27-29. 27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은 이삭이 축복하는 내용이 담긴 시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삭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리를 말하고 있었다. 그는 무지한 채로 말했지만 그는  
사실을 예언했던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미했던 것 같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히 11:20).

### 대결이 계속되고, 심해지고, 끝나게 되다.

분하고 억울한 에서는 그의 감정을 증오와 살인적 분노로 키워 나갔고, 결국 야곱은 북쪽에 있는 그의  
외가쪽으로 피신을 하게 된다. 거기에서 그는 어머니의 형제 라반과 연합해서 일을 하게 된다.

창세기에는 몇 개의 위대한 화해의 장면이 나오는데 33장은 바로 가장 위대한 장면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 돋보인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 마침내 야곱은 에서와 화해를 하게된다. 가장 반응이 컸던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다.  
에서가 가장 많이 변해 있었다.

야곱은 에서에게 접근했고 그 앞에서 아주 겸손하게 엎드렸다. 하지만 에서는 마치 당자의 아버지와  
같았다. 에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고, 그를 끌어 않았고, 입을 맞추며 야곱과 함께 울었다(33:4).  
그는 심지어 야곱을 “내 동생아”라고 불렀다(창 33:9).

이 사건 이후 두 형제는 영원히 헤어져서 살게된다.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된 유일한 경우는 아버지 이삭의  
장례식에서였다(35:29). 그러나 최소한 그들의 관계는 결국 훨씬 좋은 기반 위에 놓여지게 되었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수업시작 전

a. 과 제목과 아웃라인 제목들을 쓴 다섯 개의 카드보드를 준비하라. 이 것을 인도자 지침서의 지시에 따라 수업시간에 사용하도록 하라.

- I. 증폭된 사랑, 나뉘어진 사랑(25:19-26)
- II. 가족의 편애와 불일치(25:27-34)
- III. 빼앗긴 축복(27:1-40)
- IV. 대결의 결과

b. 커다란 종이나 혹은 신문지에 학습공과 보충에 나오는 "형제간에 사이좋게 자라도록 기르기"의 제안들을 써라. 수업을 마친 뒤에 이것을 벽에 붙여놓을 수 있도록 하라.

## 삶과의 연결

1. 가족들이 편을 들어주었던 유일한 아이가 있었는가 질문을 시작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라. 만일 그들이 그러한 자녀이었다면 무엇이 좋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싫었는지 질문하라.
2. 벽에 수업 전에 준비한 카드보드를 붙여라. 그리고 오늘 반원들이 가족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기 위하여 야곱과 에서사이에 있었던 라이벌 관계를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 학습인도

3. 아웃라인의 각 소제목 내용을 이용하여 핵심구절에 대한 15분 정도의 강의를 하도록 하라. 각 소제목에 대한 설명을 시작할 때 미리 준비한 카드보드를 과 제목 아래에 붙이면서 말하도록 하라. 수업 내용에 다음의 요소들을 포함시키도록 하라.

- I. 증폭된 사랑, 나뉘어진 사랑(25:19-26)
  - \* 리브가의 불임증
  - \* 이삭의 기도
  - \* 하나님의 응답
  - \* 리브가의 복중에서 싸우는 쌍둥이
  - \* 쌍둥이의 출생
- II. 가족의 편애와 불일치
  - \* 쌍둥이의 신체적 차이들
  - \* 쌍둥이의 성경적 차이들
  - \* 부모의 쌍둥이에 대한 편애
  - \* 쌍둥이의 장자권의 차이
  - \* 바뀐 쌍둥이의 장자권
- III. 빼앗긴 축복(27:1-40)
  - \* 이삭을 축복하려고 한 이삭
  - \* 야곱을 축복하게 하기 위한 리브가의 계략
  - \* 야곱의 반응과 성공
  - \* 에서의 반응과 실패
- IV. 대결의 결과
  - \* 복수를 위한 에서의 계획
  - \* 탈출을 위한 리브가의 계획
  - \* 야곱의 도주

4. 토론을 위해 다음 질문을 활용하도록 하라.

- \* 형제간의 대립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 \* 리브가와 야곱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 될 수 있는가?
- \* 야곱은 어떻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는가? 만일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 \*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 \* 이 이야기는 가족의 편애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 적용격려

5. "형제간에 사이좋게 자라도록 기르기"의 제안들을 써놓은 커다란 종이를 잘 보이는 곳에 놓아라. 자원하는 반원들이 기록된 항목들을 하나씩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그들이 더하고 싶은 내용을 여백에 기록하도록 하라.

6. 만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하도록 하라. 할머니들 또한 이것을 그들의 손자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반원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혹은 교회 가족들의 건강한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 반원 중 한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수업을 마치라.

## 제 8 과

### 하나님 그리고 불완전한 사람

#### 핵심본문

창세기 28:10-22; 32:24-31; 35:9-15

#### 배경

창세기 28:10--33:20; 35:1-29

#### 주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 가운데 불완전한 사람과 함께, 불완전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역사하신다.

#### 탐구 질문

어떤 식으로 -- 일반적인 혹은 특수한 방법으로 -- 당신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 교육 목표

당신이 하나님을 경험한 -- 일반적인 혹은 특수한 방법으로 -- 방식들의 의미를 생각해본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에서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교활하게 가로챈 이후, 그를 증오했다. 그는 아버지 이삭이 죽자마자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다. 두 아들을 모두 잃을 위험에 처한 리브가는 야곱이 적합한 아내를 찾도록 내보내야 한다고 이삭에게 계속 졸라댔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서 뱃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라고 했다. 야곱의 기나긴 여행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29-31장은 야곱이 라반과 대립구조에 빠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야곱은 인간의 꾀로서는 자기보다 앞서는 유일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그가 외삼촌 라반이었다. 라반과 함께 있는 20년 동안 야곱은 라반의 책략에 넘어가 결혼도 두 번을 하게 된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크게 부요하게 되고 후에 히브리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는 열 두명의 아들들도 두게 된다.

#### 본문해석

##### 야곱이 베델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28:10-22)

28:10-11. 중년이 된 야곱은 브엘세바 아래에서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하란으로부터 떨어진 북쪽으로 올라갔다(창 22:19; 26:23,33). 결국 그는 루스라고 불리는(28:19) 한 장소에 이르렀다. 후에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 바꾸어 부른다(28:17,19). 그곳에서 밤을 지내기 위해 그는 돌을 베개삼아 잠을 청했다(28:11). 독특한 꿈을 꾼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28:12-15. 꿈속에서 야곱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를 보았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곳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주께서 옆에 서 계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28:13-15).

이야기의 강조점은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28:16-22. 야곱이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무소부재(無所不在)하심을 깨달았다가 보다는, 언약의 하나님인 특정한 장소 이외에서도 당신의 백성과 교제 하신다는 사실을 새로이 알게 되었다. 고대 이방 종교의 신들은 대개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것들이었으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초월자로 파악한 신앙은 당시로 볼 때는 놀라운 것이었다.

벧엘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서 뒷날 야곱이 귀향할 때 이 곳에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처소 내지 하나님의 전을 지어 영광돌리겠다는 그의 약속과 신앙과 소망을 담고 있는 지명이다. 뒷날 야곱은 고향에 귀향한 후 그 약속을 지켰다(35:7,15)

####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다(32:24-31)

야곱은 메소포타미아에서의 21년의 객지생활 후에 고향인 집으로 돌아갔다. 라반과 우여곡절 끝에 헤어진 후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 압복강에 홀로 남는다. 거기서 그는 한 "남자"와 온 밤을 씨름을 한다(32:24).

32:24-25.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장 미가엘일 것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1)야곱은 그를 하나님이라 불렀고(30절) (2)선지자 호세아는 하나님과 천사를 교차하여 사용한 점(호 12:3,4)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사람은 단순한 천사(an angel)가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the Angel of the God)가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로도 표기되는(22:11; 출 3:2; 삶 6:12) 성육신(成肉身)이전의 그리스도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창 16:7 강해, 여호와의 사자).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도, 즉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기도밖에 없음을(시 91:15; 막 9:29; 놀 11:9) 역설(逆說)적으로 암시해 주는 말이다.

환도빼는 사람의 몸을 반쳐주는 물리적 힘의 생성(生成)부분으로 종종 생명과 힘의 근원을 상징한다(35:11; 46:26; 히 7:10). 따라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뼈를 치신 것은 (1)지금까지 육적 수단에 의지해 왔던 야곱을 완전히 꺽음으로써 이후로는 하나님만을 의지케 한 것이었으며 (2)또한 예표적으로는 장차 그의 허리에서 나올 이스라엘의 운명 역시 인간적 수단에 의지하게 될 때 이처럼 무력해 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와 아울러 오직 그 허리를 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이었다.

32:26-27. 날이 새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로 그만 가게 하라고 야곱에게 말했다. 그러한 야곱은 끝까지 축복을 요구했다. 야곱은 항상 축복을 추구하는 자이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기 직전 교만과 사기 그리고 속임수로 점철된 옛 이름을(27:36) 고백시킴으로써 새 이름의 의미와 가치를 부각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32:28.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데 물론 이것은 후에 전체 나라의 이름이 된다. 야곱의 많은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으로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

32:29.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물었을 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답하고 떠나 간 것은 곧 “야곱아,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겠느냐?”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32:30-31. 이제 야곱의 몸에도 바울처럼 은혜의 흔적이 새겨진 것이다(고후 12:7-10; 갈 6:17). 다시 말해서 이는 과거의 인간적인 자신 만만함과 교만을 깨쳐 버리고 베드로처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시키는 은혜의 가시인 것이다(요 21:18).

### **야곱이 더욱 이스라엘다워지다(35:9-15).**

35:9-10. 브니엘에서 개명(改名)한 이름(32:28)을 벤엘에서 재확인시킨 것은 첫째로 그 이름을 환기시킴으로 기만과 술수로 점철되었던 오욕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갱신된 언약적 이름을 재연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와 함께 하시고 앞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케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5:11-15. 하나님께서는 "나는 엘 샤타이"라고 말씀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전능(자)'(KJV: the Almighty)를 뜻하는 '샤타이'가 합쳐진 이중 복합어로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켜 나갈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17:1;28:3;43:14; 출 6:3)에 대한 명칭이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수많은 자손이 나올 것이며 그들로부터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전에 이곳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야곱은 과연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확신에서 "벤엘"이라고 외친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 반원들이 도착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 중에서 기억할만한 방법으로 역사하신 것을 생각하도록 하라. 그 경험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 말해보도록 하라.
- 오늘 성경공부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직접적으로 만나고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하여 같은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야곱의 일생을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오늘 성경공부는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라.

#### **학습인도**

- 핵심본문과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주제를 활용하여 야곱의 이야기를 당신 자신의 말로 설명하라. 비록 야곱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 하셨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도록 하라. 약 10분정도 이 시간을 할애하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라.

- \* 야곱은 꿈을 꾸다(창 28:10-17)
- \*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를 하다(창 28:18-22)
- \* 하나님께서 야곱에서 가족을 주시다(29:1--30:24)
- \* 야곱이 브니엘에서 애를 쓰다(32:24-31)
- \* 야곱이 에서를 만나다(33:1-17)
- \* 야곱이 베델로 돌아오다(35:9-15)

4. 이야기를 마친 후 다음 질문에 반원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라.

- \* 베델에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28:10-15)
- \*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 \* 우리는 때로 어떤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잘못을 범하는가?
- \*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에 대한 결과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가?
- \* 하나님께서는 브니엘에서 어떻게 야곱을 변화시키셨는가?(32:24-31)?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듭남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 \* 야곱은 에서와 다시 재회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떻게 경험했는가(33:1-15)?
- \*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 \* 당신이 일반적으로 혹은 특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적용격려

5. 야곱의 이야기는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여준다는 것을 언급하라. 반원들도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혹은 특이한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라. 다음 삶의 영역을 칠판에 적고 이것에 대한 오늘의 교훈들을 언급하라.

- \* 예배
- \* 믿음
- \* 회개
- \* 개인적인 관계들
- \* 기도

오늘 성경공부가 이러한 영역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반원들이 말해보도록 초청하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유익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마치라.

## 제 9 과

### 꿈을 가진 자가 겪을 수 있는 일들

#### 핵심본문

창 37:3-12, 18-28

#### 배경

창세기 37장

#### 주제

요셉의 꿈들과 그것들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은 우리의 소망과 꿈들이 갈등과 특히 그것을 지혜롭게 나타내지 않을 때 곤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탐구 질문

당신은 당신이 갖고 있는 꿈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 교육 목표

요셉이 겪은 어려움들의 원인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가족과 인간상호관계에 교훈을 던져주는지 파악할 수 있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아마도 요셉은 창세기 12--50장에서 현대의 독자들이 가장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인물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는 제멋대로 자란 꼬마였고, 극단적인 고난을 통하여 성숙해지고, 후에는 능력있는 지도자로 변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비한 예비하심이 사람들의 어두운 행동들의 뒷면에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창세기 37:1은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도입부분이다. 그 요약은 이렇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가나안에 정착했다.

#### 본문해석

#####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멀어지게 만들다(37:3-12)

요셉은 열 일곱 살이었다. 당신이 열 일곱 살일 때를 기억하는가?

요셉은 그의 배다른 형제들과 함께 독자로서 일했다. 그는 그들의 조력자였다. 하지만 그는 일을 계울리하고 무언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지적하고 아버지에게 고자질하곤 했다.

37:3. 문제는 첫째로 요셉의 고자질에 있었다. 또 하나의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에 있었다. 그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 사랑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이었던 것이다.

야곱은 단지 요셉을 편애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깊은 편애를 드러냈다. 그는 요셉에게만 길게 늘어진 "채색옷"을 지어 입혔던 것이다. 요셉은 요셉의 그 화려한 옷은 그의 힘과 권위를 상징하는 옷이었다. 그러한 옷을 입어보지 못한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그는 다른 형제들이 들판에서 일할 때도 일하지 않았고 단지 감독만 한듯하다.

37:4-8. 다른 형제들이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사랑함을 보고" 그를 심하게 미워했다.

37:19-20절에서 형제들이 말한 것에 따르면 세 번째 가족 문제는 모든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었다: 요셉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죄가 아니다. 하지만, 그 꿈을 말하는 상황과 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만일 요셉이 시기가 올 때까지 잠잠하게 있었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졌을 것이다.

요셉의 이야기를 들은 형들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밭에 있던 자신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곡식단은 동생 요셉의 곡식단 앞에서 절하였다는 것을 들었을 때의 기분을 말이다.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럴 필요조차도 없었다. 그 의미는 너무나 분명한 것 아닌가?

형들은 요셉의 그 이야기를 인하여 더욱 그를 증오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37:8)

37:9-11.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어린 요셉은 어리석었다. 그는 비슷한 꿈을 또 꾸었다(바로왕이 두 번 꿈을 꾼 것을 참조하라; 41:25,32). 하지만 그는 이번에도 그 꿈을 형들에게 떠벌렸다. 해와, 달고, 열한 개의 별들이 나에게 절을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야곱조차도 화가 났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꾸짖었다: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래 네 부모와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된단 말이냐?

물론 후에 이것은 그대로 실현된다. 하지만 들어서 유쾌하지 이런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일이었다. 그 결과 그의 형들이 그를 심하게 질투하게 되었다.

장면은 행동을 취할 태세로 들어갔다. 요셉의 첫 인상은: 버릇없는 녀석, 고자질장이, 허풍선이, 떠벌이, 과대망상주의자였다. 최소한 형제들의 시각에 있어서는 말이다.

#### **형제들이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다(37:18-24)**

이스라엘은 요셉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요셉을 보냈다(37:13). 그래서 요셉은 헤브론에서 세겜을 향하여 떠났다(37:14). 그는 결국 도단에서 형들을 발견했다.

37:18-20. 형제들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 보았다. 그를 보자 그들의 마음속에서 증오가 폭발했다. 그가 혼자서 오는 것을 알아채자마자, 그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동의했다(37:18). 그들은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37:20)고 말했다.

37:21-22. 르우벤은 장남이었다(29:32). 그는 다른 입장을 취했다. 그는 37:21절에서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고 했다. "꾀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37:22). 우리는 르우벤의 말이 헛점 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구덩이에 요셉을 던지는 것은 그를 칼로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르우벤이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그 이상의 방법이 없었던 것 같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벌려고 했다. 37:22절에 의하면 그는 후에 돌아와서 요셉을 건져내고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를 데리고 오려고 했었다.

37:23-34. 요셉이 다가오자 형제들은 달려들어 그를 잡아서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요셉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잠잠히다. 비록 그가 살려달라고 외쳤을지라도 형제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리다(37:25-28).

37:25-27. 유다는 중오심에 불타 살의를 떤 형제들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세 가지 면을 들어 호소하였다. 즉(1) 아무리 밉다 해도 다른 아름다운 동생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는 혈육의 정에 호소하였으며(2) 여러 방법 중 구태여 살인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죄책의 극소화를 들어 설득하였다. 그리고(3)남의 손을 빌어 처리함으로써 수고를 덜 뿐만 아니라 뜻밖의 소득도 얻지 않겠느냐라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37:28. 모든 형제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파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조했다(37:27). 레아의 아들들은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자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을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화해의 과정을 다룬다(특별히 12과를 살펴보라).

#### 형제들이 야곱을 속이다(37:31-36)

하지만 이제 문제는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하느냐는 것이었다. 그들이 불안한 감정을 최대한 떨쳐버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서로 몇 번이고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들은 요셉의 유명한 상징적인 겉옷을 취했다. 그들은 그것을 염소의 피에 적셨다(37:31).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가져가서 보여주었다.

"우리가 찾은 것을 보세요(37:32), 이것이 요셉의 것인지 아닌지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물론 야곱은 그것이 요셉의 것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쪘겼도다"(37:33).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갈기 갈기 찢긴 것으로 생각했다. 야곱의 마음 또한 그러한 추측으로 갈갈이 찢겨 나갔다.

야곱이 이전에 아버지 이삭을 염소털로 속인 것을 생각할 때 참 아이러니하다. 둘 다 같은 염소로 속였고, 둘 다 옷으로 속였던 것이다.

야곱은 그의 겉옷을 찢었다(37:34). 그는 요셉으로 인하여 많은 날을(37:34), 아니, 사실은 수 년동안을 살펴했다.

모든 사람이 야곱을 위로하고 아들들이 그를 위로하고, 딸들도 나와서 야곱을 위로했지만 야곱은 위로 받기를 거절했다. "싫다" 그는 말했다.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37:35). 야곱은 "이제부터 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슬퍼할 것이다. 이제 나에게 행복한 날이란 없을 것이다. 나는 나의 남은 인생동안 요셉으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다."

한편 이집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팔았다(37:36). 비록 야곱이 요셉을 향한 희망은 분명히 포기했지만,

성경은 요셉이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요셉은 아직 살아있었다. 그의 꿈들은 죽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성취될 수 있을 것인지 확신하기는 힘들었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라는 연설로 유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라. 학습공파에 나오는 킹 목사의 연설을 크게 소리로 읽어라.

2. 토론을 이끌기 위하여 다음 질문을 활용하도록 하라.

- \*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꿈, 혹은 비전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 \* 우리는 무엇을 근거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꿈을 갖고 키워 나가는가?
- \* 개인적인 꿈이 곤란에 빠질 때는 언제인가?

#### 학습인도

3. 창세기 37:2-4절을 소리내서 읽어라. 반원들이 애굽이 요셉을 형들의 미움을 받게 하는 동기를 제공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주의해서 듣도록 하라. 반원들의 반응을 들은 뒤, 학습공파에 나오는 아웃라인 "가족 안에 있던 편애가 질투를 일으키다" 내용을 덧붙여 설명하도록 하라. 부모들이 자식을 불공평하게 대우하고, 다른 아이보다 한 아이를 편애하고, 혹은 한 아이는 따돌리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나누어 보라. 반원들의 반응을 네, 다섯 가지 정도를 칠판에 적도록 하라.

4. 창세기 37:5-11절을 읽기 전에 반원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은 요셉을 대리하게 하고 그의 형제들이 그를 곤란에 빠뜨린 방법들을 주의해서 듣도록 하라. 나머지 한 그룹은 형제들의 입장이 되게 하고 요셉이 스스로 곤란을 자초한 일들에 대해 주의해서 듣도록 하라. 칠판을 두 군데로 나누어 한 쪽은 "형제들의 비난"이라고 적고 한 쪽은 "요셉의 비난"이라고 적어라. 두 그룹의 반응을 각 제목 밑에 기록하도록 하라. 학습공파에 있는 아웃라인 "가족 안의 개인적인 야망이 불신을 일으키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보충해서 설명하도록 하라.

5. 37:12-17절을 요약하도록 하라. 로우벤과 유다의 계획을 주의하면서 듣도록 반원들에게 요구한 뒤 창세기 37:18-28절을 소리내서 읽어라. 어떤 형이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가 질문하라. 학습공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배려가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보충하도록 하라.

37:29-36절을 요약함으로써 이번 요셉의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록 하라.

#### 적용격려

6. 반원들이 어떤 분노이든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 용서, 기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하여 풀도록 오늘 결정하라고 촉구하라.

## 제 10 과

# 유혹이 다가올 때

### 핵심본문

창세기 39:1-21

### 배경

창세기 39:1-23

### 주제

요셉처럼 우리도 유혹이 올 때 하나님께 신실해야 한다.

### 탐구 질문

유혹이 올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 교육 목표

요셉의 사례가 유혹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 가르쳐 주는 점을 묘하살 수 있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형들에 의해 미움을 받아 노예로 팔렸던 요셉의 중요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매우 긍정적인 내용으로 끝난다. 그 경솔한 짚은이는 이집트에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 노예로 여전히 살아 있었다(창 37:36).

그리고 나서 창세기 38이 이어진다. 마치 이야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장은 창세기 39장의 문맥을 위해 최소한 세 가지의 목적을 제공한다. 첫째로 38장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긴장감을 일으킨다. 둘째로 그것은 많은 시간이 흘러갔음을 알려준다. 아마도 최소한 20년이 흘러갔을 것이다. 유다가 결혼했고 세 명의 자녀들을 두었다(38:2-6). 셋째로 유다는 성적 유혹이 다가왔을 때 넘어지고 말았다(38:13-18).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와 매우 비교가 되는 내용인 것이다.

## 본문해석

###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책임(39:1-6)

39:1. 요셉의 모험적 이야기는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38장이 삽입되어 있기 때문에 독자들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39:2-6. 애굽에서의 요셉의 성공은 죽장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15:13-16; 26:4; 28:14)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성취된 것을 의미한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눈에 띄도록 현저하게 나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그 주위 사람들에게 분명히 요셉과 함께 하는 어떤 신적 축복과 가호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감지케 했다

마침내 보디발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다. 보디발은 거의 모든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39:6절에 의하면 보디발은 단지 "오늘 저녁은 무엇이지?"하는 정도의 말만 한 것으로 보여진다.

39:6절의 마지막 구절은 다음 구절로 연결해주는 장치역할을 한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라헬이 아름다웠던 것(29:17)을 기억해볼 때 그의 아름다움을 짐작할 수 있다.

###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다(39:7-12)

39:7. 요셉의 아내 또한 요셉의 용모를 눈여겨보았다. 여인들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 우리가 기억하는 사악한 단 한 여인은 바로 보디발의 아내인 것이다. 그는 요셉에게 유혹의 눈짓을 던지기 시작했다.

마침내 그 주인의 아내는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나와 동침하자" 오랫동안 지켜보았지만 한 말은 단 그것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용감하게 접근하는 것은 오늘날의 풍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디발의 아내는 정욕적이고 뻔뻔한 여인이었다.

만일 요셉이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 요셉은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인간적인 평계들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다.

- (1)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공평하셨다. 인생은 불공평하다. 나는 잘못 취급을 당했다.
- (2) 나는 집에서 먼 타국에 있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국땅에 있다. 이집트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 (3) 그녀가 매우 집요했다.
- (4) 그녀는 나를 이해해 주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거짓 동정을 던졌을 수도 있다: "참 가련하구나"
- (5) 그녀가 나를 보살펴 줄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요셉의 순종에 도움, 원하는 것, 물질적 보상을 제공했을 것이다.
- (6) 그것은 장난이고 모험이다.
- (7) 난 육체적 정력이 넘치는 평범한 젊은이다.
- (8) 그녀가 나를 원했고 나를 필요로 했다.

39:8-9. 하지만 요셉은 간단하면서도 단호하게 거절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를 주목하라.

- (1)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 부인의 남편에 대한 공격이다. 요셉은 그 여인의 유혹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그들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의 인생에도, 특히 그 부인의 남편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했다.
- (2) 보디발은 요셉을 믿었다. 39:6절에서 말한 것처럼, 보디발은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 했다(39:8; 39:4). 요셉은 바로 보디발이 그렇게 믿어주었음으로 자기가 그러한 위치에 있고, 그러므로 이 곳에서 자기보다 보디발이 훨씬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요셉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그러한 지위를 이용해 먹을 수 없다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다.
- (3) 비도덕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이다(39:9).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에서 철저히 못미치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를 둔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 앞에서 간음을 저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39:10. 요셉은 그 유혹을 뿌리쳤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었다. 요셉은 끝가지 계속해서 그 유혹을 뿌리쳐야 했다.

요셉의 반응을 보라,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39:10). 그는 아예 함께 있는 자리를 피했다.

39:11-12. 물론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늘 그렇듯이 요셉에게 있어서도 위험을 감수한 일이었다. 12절의 내용은 결사적인 유혹으로서 마치 순결한 성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단의 필사적인 공격 수법과 흡사하다(벧전 5:8).

안주인에게도 복종할 의무가 있는 요셉의 처지에서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그녀로부터의 도망이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처럼 성도에게는 유혹 앞에서 도망할 때와 싸워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절실히 요청된다(전 3:7,8; 액 6:13; 약 4:7).

### 요셉이 강간죄로 거짓 고발되다(39:13-18)

39:13. 요셉이 마지막으로 그녀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가자 그녀는 분하여 "겁간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심지어 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는 요셉의 옷을 손에 쥐고 있었다. 누가 집 여주인의 말을 안듣고 노예의 말을 믿겠는가?

39:14-15.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민족을 들먹인 이유는 아마 (1) 문제의 핵심을 다른 곳으로 돌려 자신의 혐의를 피하고 (2) 히브리인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던 애굽인들에게 극도의 반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3) 평소 요셉의 신속한 출세에 시기심을 품고 있던 여타(餘他)의 종들에게 동조감을 형성하고자 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 음부(淫婦)의 간악성이 잘 나타나 있다.

요셉은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함으로, 그 앞에서 신실하게 행함으로, 그리고 커다란 믿음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 고난을 겪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둘레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셨다!

### 감옥에 갖힌 요셉(39:19-23)

39:19-20. 보디발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는가? 어쩌면 그는 사건의 전황을 대충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39:19절은 그가 심히 노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가 부인에 대해서 노했는지 요셉에 대해서 노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있다.

어찌됐든,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다(39:20). 어쩌면 이것은 보디발의 심경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노예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당연히 사형감이었다. 아마도 보디발은 요셉에게 형식적인 가벼운 처벌을 하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입장에서는 또 다시 인생의 밑바닥을 쳤다. 아마도 그의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던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 구절을 주목하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39:2,3,21,23).

물론 얼마 안가서 요셉은 감옥의 모든 일을 전담하게 되었다(39:22). 주께서 그와 항상 함께 하셨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다(39:21).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학습공과 보충에 나오는 고대 이집트의 전설인 "두 형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소리내서 읽게 하라. 질문, 그 끝이 어떻게 다른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유혹이 얼마나 평범한 일인가?

#### 학습인도

2. 오늘 요셉에게 그가 한번도 겪지 못했던 재판을 당신이 진행할 것이라고 언급하라. 칠판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누라. 첫 번째 코너에 "기소자", 두 번째 코너에 "변호자" 그리고 세 번째 코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라: 고발? 동기? 증인들? 증거? 그 재판에 반원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요셉이 그의 주인을 배신할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하면서 창세기 39:1-6절을 읽게 하라. 다 읽은 후 질문하라; 기소자가 주장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변호자는 어떻게 반증할 수 있는가?

3. 무엇이 요셉이 성적 유혹을 계속해서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었다고 생각하는가?
4. 39:13-20절을 당신이 읽을 때 계속해서 고발과 증거에 대해 주목하라고 반원들에게 요구하라. 다 읽은 후에 토론과 사고를 고무시키기 위해 다음 질문을 활용하도록 하라.
  - a. 여주인의 고발은 무엇이었는가?
  - b. 그녀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물은 무엇이었는가?
  - c. 칠판에 있는 처음 두 코너로 돌아가서 질문하라; 검사는 누구를 증인으로서 세우겠는가? 첫 번째 코너에 대답한 것들을 써라(39:13014, 16-18절을 참조하라).
  - d. 변호사는 누구를 증인으로서 세우겠는가? 대답들을 두 번째 코너에 기록하라(12).
  - e. 감히 보디발의 아내를 반대하고 요셉의 편에 서서 증인이 되 줄만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가?
  - f. 요셉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39:9절을 보라).

마지막 아웃라인 "인생의 축복을 받는 일은 자주 커다란 도전을 만나게 된다"의 내용을 활용하여 보디발의 반응에 대한 통찰을 하라.

5. 다음 질문에 반응하도록 하라:

- a. 불공평한 판결은 무엇이었는가?
- b. 당신은 하나님이 요셉과 항상 함께 하셨고 그를 모든 것에서 축복하셨다고 기록한 39:2,3,5,21,23절의 말씀들과 그 판결 사이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할 수 있는가?
- c. 당신은 요셉이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 d. 당신은 이 말에 동의하는가, 아니면 반대하는가?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 적용격려

6. 학습공과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질문들을 참조하라.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몇 가지를 골라서 토론하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친양을 부름으로써 수업을 마치도록 하라.

## 제 11 과

### 어떻게 성공하는가

#### 핵심본문

창세기 41:15-16, 25-45, 53-57

#### 배경

창세기 40--41

#### 주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요셉의 믿음을 통해, 요셉은 이집트에서 유명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올랐다.

#### 탐구 질문

성공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 교육 목표

요셉이 유명하고 권세 있는 자리에 오른 방법과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사건들을 비교한다.

## 성경주해

#### 배경 이해

지난 장면에서 본 요셉은 그가 아무 잘못을 범하지 안했는 데도 이집트의 감옥에 있었다. 그는 옳은 것을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켰다. 그는 또 다시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계속 함께 하셨다. 요셉은 곧 그 감옥의 모든 것을 전답하는 자리에 올랐다(39:22-23).

시간이 흘렀다(40:1,4). 하지만 우리는 얼만큼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른다. 그 사이에 바로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한 사람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또 한 사람은 떡(음식)을 맡은 관원장이었다.

이들이 감옥에서 이상한 꿈을 꾼 것을 요셉이 해몽해줌으로써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한다. 세월이 조금 더 흘러 마침내 바로 왕의 꿈까지 하나님의 지혜로 정확하게 해몽한 요셉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된다.

#### 본문해석

##### 바로 앞에 불려온 요셉(41:15-16)

"꿈을 들으면 능히 풀다더라" - 바로왕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16절).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 요셉은 이전에 옥에서 두 죄수의 꿈을 해몽할 때에도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만을 드러내었다(40:8). 이제 바로 앞에서도 꿈을 해석할 능력은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밝힌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를 평안히 할 것이라는 점도 미리 말하고 있다.

###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다(41:25-32)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감히 대국의 왕인 바로와 이런 방식으로 대면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한 요셉은 신적 권위로서 바로와 대면하고 있다. 즉 요셉은 종의 신분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스승의 자격으로 제국의 왕 바로를 대면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보이심이니이다 - 요셉은 먼저 바로의 두 가지 꿈이 같은 의미임을 밝혔다. 또한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되 그 사실성을 확신시킬 목적으로 반복해 주셨다는 증언을 첨가하였다.

### 바로에 대한 요셉의 조언(41:33-36)

"이같이 행하사" - 이처럼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는 것에서 한결음 더 나아가 그 대책까기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해몽과 이방의 애매 모호한 신탁은 전혀 다른 것임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애굽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이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곧 온 세상에 임한 기근으로 부터 야곱의 가족을 구해내고 애굽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56, 57절).

###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다(41:37-46)

41:37-39. 요셉의 꿈의 해석과 다가올 일에 대한 방비책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졌다.

41:40-44. 요셉 당시 애굽은 상.하 두 애굽으로 나뉘어 있었으며 또한 각각을 다스리는 독립된 고관(高官)이 행정력을 발휘하였다. 그러나 애굽 전역을 통털어 최고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왕은 역시 단 한 사람이었는데 요셉은 그러한 왕을 대행할 수 있는 중차대한 총리 대신 직에 임명된 것이다.

바로는 요셉에게 관직을 맡긴 후 먼저 인장 반지를 그에게 주었다. '인장 반지'란 반지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인(印)을 새긴 것으로써 어떠한 일을 재가할 때 도장처럼 찍어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41:45-46. 버금 수레 - 왕의 수레 바로 뒤를 따르는 수레로 행차 서열상 2인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훌륭한 수레를 말한다(에 6:11).

### 요셉이 풍년과 기근동안에 감독하다(41:47-57)

41:47-52. 요셉은 십 칠 세때 애굽으로 팔려 와서(37:2) 십삼년 동안 노예로 있었으며 그 중 최소한 삼년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 같다(40:4; 41:1). 그런데 요셉이 30세에 공인(公人)이 된 것은 예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눅 3:23)을 예표해 주는 듯하여 자못 의미 짙장하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이 나이는 성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민 4:3, 23).

그 넓은 애굽 땅에서 이와 같은 큰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막대한 인력이 동원되어야 했을 것이다. 따라서 비록 성경에는 이런 과중한 업무가 매우 간략히 언급되어 있지만 이런 중책을 수행한 요셉의 능력과 공로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없다.

41:53-54. 요셉의 예언과 같이(27절) 애굽에는 칠 년 흥년이 시작되었다. 팔레스틴 땅과는 달리 정기적으로 범람하는 나일 강을 가진 애굽에서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이다. 그러나 애굽의 기록들에 의하면 이따금 몇 년 동안 기근이 지속되기도 하였었던 사실이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41:55-57. 요셉의 치적은 애굽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까지 미쳐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사러 오게 되었다. 결국 이런 사건은 야곱의 가족이 요셉과 극적으로 재회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요셉이 애굽에 팔리도록 섭리하셨다고 볼 수 있다.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다음 두 인물의 이야기를 말함으로써 수업을 시작하라.

\* 밀러드 풀러(Millard Fuller)는 인생의 바닥을 쳐본 적이 있는 갑부이었다. 그는 죄지아 아메리카스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거의 무상으로 지어주었다. 모든 사람은 살아갈 적합한 집이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던 그의 꿈은 오늘날 우리가 'Habitat for Humanity'로 알고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의 꿈은 못과 망치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싣고 온 세상에 펴졌다.

\* 챕 콜슨(Chuck Colson)은 워터게이트(Watergate)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의 하나이다. 그는 감옥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시기가 되어 출감되었다. 그의 꿈은 약 200만의 감옥수들을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한 Prison Fellowship을 탄생시켰다.

Habitat와 마찬가지로 Prison Fellowship은 오늘날 세계전역에 펼쳐진 사역이다.

### 학습인도

2. 오늘의 수업은 이집트타임즈헤럴드의 헤드라인 기사를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라. 다음 여섯 가지의 헤드라인들을 6인치 되는 종이에 미리 준비한 뒤 설명하면서 보여주라.

"바로가 고위 간부들을 투옥시키다"(창 40)

"신하들이 이상한 꿈을 꾸다"(창 41:1-8)

"히브리 노예가 해몽하다"(창 41:9-16)\*

"어두운 경제적 예고"(창 41:25-32)\*

"가난뱅이에서 갑부로 된 노예"(창 41:33-45)\*

"노예의 예언이 이루어지다"(창 41:53-57)\*

3. 학습공과와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주해를 활용하여 각 헤드라인 뒷 이야기를 설명하라. \*된 헤드라인의 핵심구절들을 읽어라.

### 적용격려

4. 당신이 젊은 성인반을 가르치고 있다면 학습공고 보충에 나오는 "묵상"을 인도하라. 토론을 위해 그룹이 질문을 선택하도록 하라.

5. 다른 방법으로, 토론을 위해 다음을 질문을 활용해도 좋다.

\* 요셉이 감옥에서 두 관원장을 만난 것을 생각해볼 때 예상치 않은 사람과의 만남이 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어떤 중요한 일에 관여하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보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 가운데 기다리는 시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 요셉이 죄수의 신분에서 이집트에서 왕 다음가는 신분으로 오른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큰, 혹은 부담스러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 제 12 과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각 반원들에게 빈 종이와 연필을 나누어 주라. 그들의 인생을 표시할 수 있는 선을 종이의 반까지 그리도록 하라. 각자가 그런 그 "순례기"를 가지고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라.

- (1) 선이 시작하는 부분에 "탄생"이라고 표시하고 미래를 향하여 화살표를 그리도록 하라.
- (2) 10년씩 끊어서 당신의 인생을 그 선 위에 표시하도록 하라. 그리고 당신이 지금 있는 시점을 X로 표시하도록 하라.
- (3) 처음 10년을 표시하는 영역에서 당신의 기억에서 가장 좋은 어린 시절의 가정을 그려보라.
- (4) 두 번째 10년을 표시하는 영역에서 당신을 포함해서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의 그리운 모습들을 상상하라. 어떤 모습이 당신이었는지 표시하라. 그 가운데 죽은 사람이 있다면 표시하도록 하라.
- (5) 최근 10년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가족들(배우자, 자녀들 등)의 개개인의 모습과 함께 묘사하도록 하라.
- (6) 어린 시절 10년 아래에 자신의 가족에 대해 어떻게 느꼈었는지에 대해 묘사하는 단어들을 세 가지씩 쓰도록 하라. 최근 10년의 구간에는 당신의 가족이 어떻게 되기를 소망하는지에 대한 것을 묘사해주는 단어를 세 가지 쓰도록 하라.
- (7) 당신의 인생 여정 중에 가장 최고의 시기에 별 표를 하도록 하라. 인생의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어두운 구름 모양으로 하도록 하라.

2. (6), (7)의 대답을 각각의 파트너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2분 정도의 시간을 주라. 우리 각자가 개인의 경험들을 오늘 레슨에 가져와서 요셉의 경험에 비춰보면서 성공적인 인생의 지침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성경공부를 시작하도록 하라.

#### 학습인도

3. 커버에 "요셉의 가족 앨범"이라고 쓴 노트를 준비해서 다음을 각 장마다 다음 자막을 기록하라.

- (1) 창 42:1-5 --- "여행이 시작되다"
- (2) 창 42:6-9, 16-17 --- "요셉이 자기의 비밀을 지킨다"
- (3) 창 42:18-24 --- "형제들이 고백하다"
- (4) 창 42:25-28 --- "요셉의 처음 시험"
- (5) 창 43:1-7 --- "아버지의 마지못함"
- (6) 창 43:8-13 --- "돌아가기를 준비"
- (7) 43:24-30 --- "요셉의 비밀"
- (8) 44:1-5, 11-13 --- "요셉의 두 번째 시험"

- (9) 창 44:25-34 --- "변화의 증거"
- (10) 창 45:1-5 --- "요셉이 자신을 밝히다"

만일 반 인원이 5명 이하이면 공부를 위해서 2,4,8,9, 그리고 10번만 할당하도록 하라. 10명 이상이면 짹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각 사람에게 할당받은 성경구절들을 뚝독하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종이 반쪽에 자기의 자막에 관계된 내용을 만화에서 사람이 대화할 때 사용하는 풍선모양의 그림 안에 써넣도록 하라.

4. 약 5분 뒤에 각 반원들에게 자신들이 할당받은 부분을 그려놓은 종이와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라. 2,9, 그리고 10번을 할 때는 이번 레슨의 핵심구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인도자 지침서와 학습공과의 "성경주해" 내용을 참조하여 수업을 더욱 풍부하게 하라.

### 적용격려

5. 질문; 당신은 요셉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당신의 청소년 시절에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었는가? 오늘날 요셉이 당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상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6. 질문; 요셉의 가족은 어떻게 화해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칠판에 반원들의 반응을 기록하라: 예를 든다면 - 신뢰의 회복, 자백, 용서, 대화, 용납, 기회를 한 번 더 줌. 나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가족간에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써 수업을 마치라.

## 제 13 과

###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 교사를 위한 제안들

#### 수업계획

##### 삶과의 연결

1. 학습공과의 성경주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방법들"로 제목이 붙은 부분의 내용을 반원들에게 읽어줌으로써 요셉의 일생을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관점으로 언급하라. 그리고 질문하라; 왜 요셉이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가?

##### 학습인도

2. 이집트를 포함하고 있는 동부 지중해의 지도를 펼쳐놓으라. 요셉의 시대에 위치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집트의 수도인 나일강 델타지역을 표시하라.
3. 다음 세 개의 핵심 구절을 포스터로 만들어서 진열하라: 창 45:5,7; 50:20.
4.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개의 극적인 장면들이 나온다고 말하라. 칠판에 다음과 같이 써라, "장면 1 -- 꿈을 계속해서 간직함." 반원 중 한 사람에게 창 45:4-15절을 읽도록 하라. 학습공과와 함께 인도자 지침서에 나오는 "성경주해"를 활용하도록 하라.
5. 계속해서 칠판에 다음을 써라; "장면 2 -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창 50:15-21절을 소리내서 읽도록 하라. 인도자 지침서의 "성경주해"와 함께 학습공과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라. 또한 학습공과의 질문을 활용하여 토론을 유도하라.

##### 적용격려

6. 요셉의 일생을 요약해주는 다음 구절들을 칠판에 기록하라.

- \* 개인적인 꿈들
- \* 하나님의 장기적인 계획
- \* 용서와 치유
- \* 가족의 책임
- \* 정직

다음을 설명함으로써 수업을 마무리하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요셉은 자기 가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그의 인생을 던져야 하는 것으로 선택된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복함으로써 요셉의 개인적인 꿈들은 성취되었다. 요한복음 3:16절을 인용하라, 특히 불신자가 있다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라.